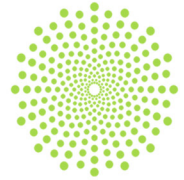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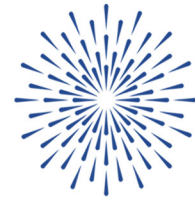


2005 - 2025
예손병원 20년사

YESON HOSPITAL
20th Anniversary



2005 - 2025
예손병원 20년사

YESON HOSPITAL
20th Anniversary



예손병원은 2005년 개원 이래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20년 동안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20주년 기념 웹프로슈어는 예손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간 도전과 성장의 여정을 소중히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믿음과 응원 덕분에 예손병원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손을 잡고, 수많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의 예손이 있기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신뢰 속에 더 나은 예손병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손병원

부천유일
복지부 지정

야간진료



/
예손병원은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발간사

20년전,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고 싶다’
라는 의지로 시작한
병원이 어느덧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써, 정형외과의 대표적인 2차병원으로써 굳건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소 생소했던 ‘세분화 진료시스템’이라는 진료문화는 어느덧 예손병원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의 세분화 진료, 국내외 학회 및 연구 활동, 전문의 당직 시스템, 750컨퍼런스 등 그 어느 병원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으며 질 높은 진료수준으로 예손병원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며 도전과 열정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내며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 20년은 예손병원의 설립 이념과 개원 정신, 그리고 걸어온 길을 공유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될 새로운 시간들은 예손병원의 자랑스러운 지난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경험을 마음에 담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면 합니다. 이번 발간되는 20년사에는 환자 진료와 의학 연구, 봉사와 열정을 바친 의료진들과 직원들의 소중한 땀과 도전정신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손병원의 20년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20년사 발간을 계기로 우리 예손병원의 설립 정신을 이어나가며 지난 20년 못지않게 더욱 크게 도약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년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손병원
김진호 대표원장



/
꾸준하게 완벽한 발전을 이룬
20년 후의 예손병원을 기대합니다.



“예손 정형외과아???
아~ 예쁜 소~온! 잘 지었네,
누가 지었어?” 했던 것이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외과임에도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정형외과의 큰 장점인데, 하필 그중에서 응급 수술이 가장 빈번한 수부를 전문 분야로 내세워 개원을 하다니 돌이켜 해도 참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응급 수술을 할 때 외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로서도 풍당 풍당은 많이 그렇다 했으니까요. 더구나 수지 접합 수술을 하다보면 풍당당당...이 일상 일 텐데.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국 동문 전문의들이 합류하였고 몇 년 안 되어 척추, 관절 센터를 갖춘 예손병원으로 확장 개원하였다 하여 이제 자리를 잘 잡았구나 했고, 그리 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이전 개원식을 갖게 되었으니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워낙 말주변이 없기에 말하는 자리를 본능적으로 피하려 애쓰는 저이지만, 제가 마침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던 터라 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하였습니다. 와서 보니 지하철역 인근의 현대식 신축 건물에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그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 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걸 맞는 내용의 축사도 못했지 싶습니다.

새 건물을 마련하여 이전을 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열정과 능력은 물론이고, 이전 개원에 따른 동료 의료진들 간에 있었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것은 무엇보다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후 저는 예손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병원이라 믿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퇴 후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줄이야.

제가 이 병원에 근무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수익과 관계 없이,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세부 전문 분야를 모두 갖추고 최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에 부응하였습니다.

제가 그간 현장에서 지켜 보아온 지금의 예손병원은

- 1) 건물과 시설이 정형외과 진료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마련하였으니 당연하겠지요.
- 2) 전문병원으로는 드물게도 늦게까지 응급진료를 하고 당직의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3) 매일 아침 당일 수술 예들을 전체 의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작은 불합리함이라도 걷어 내려는 노력인데 요즘 개원가에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 4)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지향하는 만큼 정형외과의 세부 전문 분야를 모두 갖추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5) 각 분야의 최신 지견을 얻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이제 정형외과 문제를 호소하는 서울의 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는 병원은 우리병원이 유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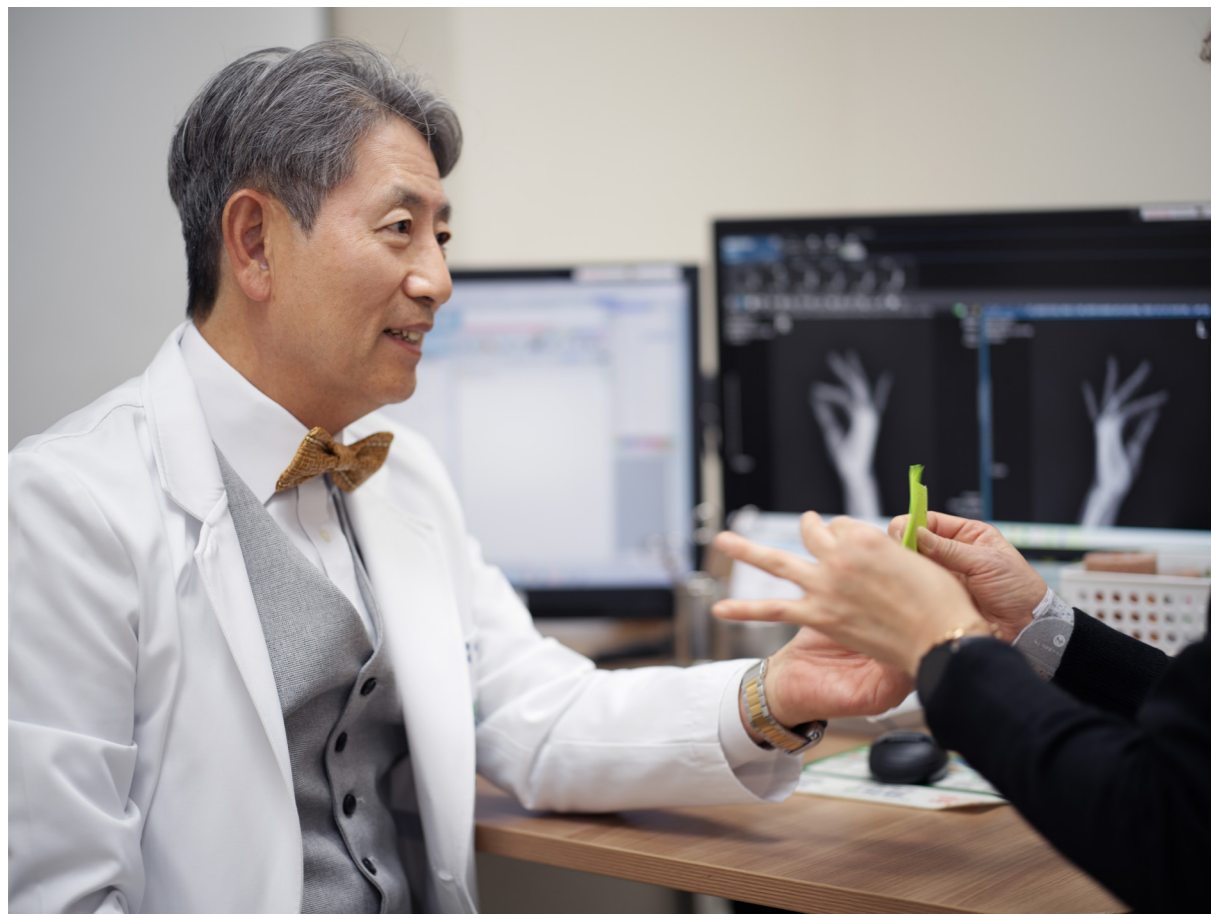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그간 이렇게 병원이 발전해오는데 있어 크고 작은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원만한 가운데 꾸준히 완벽한 발전을 이룬 20년 후의 예손병원을 기대합니다.

/
예손병원
김희중 명예원장
기회중



/

우리나라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
연구와 교육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기를



예손병원
개원 20주년에
즈음하여

2005년 어느 날, 인제대 상계 백병원에 근무하던 김진호 선생과 이화대 목동병원에 근무하던 정준모 선생이 나를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함께 手部 전문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대학교수가 개원하는 일은 드물던 시절이었다. 병원 이름을 ‘예쁜손’ 즉 예손이라 지었다.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던 날이 이미 까마득한 20년 전이다.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고 또 일부는 다른 길을 찾아 떠나면서 발전을 거듭한 예손병원은 이제는 당당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거듭나 많은 환자들에게 밝은 등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예손병원은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병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드날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역 병원’에서 ‘전국 병원’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최근 다양한 환자군을 치료하며 쌓인 지식을 토대로 많은 의료진이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연구 병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학술 활동도 매년 괄목하게 증가 일로이다. 그리고 수부외과 전임의를 선발하여 훌륭히 교육함은 물론, 각 대학병원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연수 교육을 담당하여 ‘교육 병원’으로의 면모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진료, 연구, 교육’은 더이상 대학병원의 전유물이 아님을 예손병원이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개원한 미국의 Mayo clinic은 130년을 훌쩍 넘게 나날이 발전하여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손병원도 이처럼 발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 연구와 교육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예손병원
백구현 명예원장
백 구 현



축사

/ 예손병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며, 정형외과 의사로 예손병원에 발을 들였던 2010년의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예손병원은 2005년에 예손 정형외과의원으로 시작하여 빠른 성장으로 160병상 규모의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환자들로 항상 붐볐고 수술실이 부족해 늦은 시간까지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았고, 옆으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경인 지역내 산업재해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외상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질환 환자들도 늘어났고 어느 날 문득 '환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싶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당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저에게 “발이 아플 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거나 “이런 병원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에는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족부 질환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손병원
문정석 원장



족부는 뼈나 관절뿐 아니라 신경장애, 혈액순환장애, 무좀, 발톱질환, 통풍, 당뇨발 등 다른 학문 분야들을 복합적으로 공부해야하는 통합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족부 전문 의료진 수는 적었고, 수가 적다보니 제대로 된 족부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족부 정형외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주목받지 못해 환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인터넷이나 기존 환자들의 소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물론 지금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 확충으로 인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경험도 쌓이면서 환자 불만은 점차 줄어들었고 예손병원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 각종 규제, 의료 분쟁의 일상화, 저성장 사회와 비급여 진료 제한 등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반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환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세분화된 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손병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손병원은 척추, 관절, 수부, 족부 등 세분화된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3차 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의료시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최고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손병원의 가치이자, 가장 큰 자산은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손병원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건 우리를 믿고 찾아준 환자들의 신뢰와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족부센터에 몸담은 의료진으로서 환자분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자세로 발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큰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예손병원의 20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20년도 더욱 밝고 건강한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 예로부터 만 20세를 남자는 약관(弱冠)으로 갓을 쓰는 나이, 여자는 방년(芳年)으로 꽃다운 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손병원도 개원 이후 세 번의 확장과 이전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병원의 정형외과보다 더 세분화된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이 되었습니다. 20년 중 19년을 함께한 저로서는 기쁨과 함께 뿌듯함도 느낍니다.

이화여대 목동 병원 교수로 2년 선배님이셨던 정준모 원장님과 상계 백병원 교수로 저와는 동기인 김진호 원장님이 대학병원 교수를 그만 두고 부천 외과 작은 건물에서 의원으로 개원할 때, 지금은 은퇴 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백구현 교수님 아래로 저를 포함한 몇 안 되는 수부외과를 전공했던 의사들이 서울대 병원에서 모여 축하해주고 발전을 기원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부외과는 정형외과 분야 중에서도 응급 수술이 많고 힘들고 어려우며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인기 영역입니다. 당시 제가 수부외과 전담의를 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 정문상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배고픈 분야인데 할래?” 라고 하시던 첫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유행하는, 소위 “낙수과”에 해당하죠.

게다가 당시에는 수부외과 전문의 제도가 없었고 전문 병원 제도도 없어서 수부외과라는 단어가 환자들에게 아주 생소하게 느껴졌을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를 그만 두고 수부외과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원을 개원

예손병원
이충훈 원장



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손정형외과 개원 당시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천 남동 공단이 크게 돌아가던 시절이라(2006년경부터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산재사고로 손을 다친 환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밤에도 주말에도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바쁘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었고, 제가 감당하지 못한 환자들은 예손정형외과에서 받아 진료해주는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손정형외과 두 분 원장님들도 격일로 병원에서 족잠 자며 응급수술을 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러다 개원 1주년 무렵 어느 날, 원장님들은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좀 더 나을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예손정형외과 합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교수에 대한 꿈이 있었고 다른 길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저로서는 두려움이 앞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몇 개월을 고민하며



추 사

수차례 결정을 번복하고 나서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개원해 자리 잡은 병원에 조건 없이 저를 받아들인 두 분에게 고마워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두 분 원장님이 예손병원을 개원한 이유이기도 한,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 없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실과 병실, 수부외과 의사(수부외과 의사가 두 명인 곳조차 드뭅니다), 마취과 의사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수부외과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기도 어렵죠. 손은 치료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처 대학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기점으로 예손 병원은 더욱 견고히 자리 잡으며 환자들도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즈음에는 하루 외래 진료 환자 수 평균 100명(개원초기 목표이자, 꿈이었던 숫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건물 임대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병원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심하며 다방면으로 물색하던 중 어느 날, 아침 운동을 하던 김진호 원장이 우연히 예손 정형외과 건물 인근 약대 오거리에 큰 건물 하나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보다 큰 건물에서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이전할 때에는 저와 김진호 원장님뿐만 아니라 대학 동기이자 척추, 고관절, 슬관절까지 진료가 가능한 임수택 원장, 유광현 원장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CT와 MRI 장비를 갖추며 우리는 정형외과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진료할 수 있는, 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료 영역을 넓히며 고민이 있었다면 낮은 진료 수에 비해 응급환자는 많은 수부외과와, 진료 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응급이 적은 다른 정형외과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 운영이 가능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합류한 두 분 원장들은 수부외과 원장들과 마찬가지로 밤에 병원에서 번갈아 자면서(당시에는 24시간 야간 진료를 했었음) 당직도 서는 등 배려와 협력 속에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는 정형외과 분야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만 환자 수는 많은 족부 영역을 부천 최초로 문정석 원장이 전문적으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족부 분야에서도 예손병원이 앞서 가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족부 질환까지 도맡았던 수부외과 원장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 수부외과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늘 고민하고 걱정하던 차에는 김태훈 원장이 마취과 기동 역할을 해주셔서 다른 의사들이 마음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밤새 수부외과 응급 수술을 하려면 함께 밤을 새어줄 든든한 마취과 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동료 의사들이 예손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 본원에서 근무하다가 본인 병원을 개원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예손정형외과 시절부터 함께 한 간호, 원무(총무), 처치실 부서 등 많은 직원들도 항상 부족한 인력으로 힘들고 많은 일들을 묵묵히 해주면서 예손병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준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손병원이 20세 약관의 나이를 넘어, 30세 이립(而立), 40세 불혹(不惑), 50세 지천명(知天命) 이상의 나이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형외과 병원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예손병원
이충훈 원장

2005년 작은 의원으로 시작한 예손병원이 어느덧 탄생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14년 1월 16일 예손병원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이면 예손병원에서 근무한 지 11년째가 되네요. 특히 예손병원이 가장 빛나게 성장해온 지난 10여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11년 전의 그날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전임의를 마쳤음에

추 사

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또한 부족함을 느끼던 시기였죠. 그러던 중 김진호 원장님과 임수택 원장님의 배려 덕에 예손병원에 합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손병원에는 전공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수련동기들이 몇명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붙일 곳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는 좋은 안식처가 될 것 같았고, 막막한 상황으로부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손병원에서의 첫 인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예손병원에서 당직 업무를 돕고 원장님들께 배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때의 인연 덕분에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도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무한 지는 11년이지만, 인연의 시작은 벌써 16년째네요. 준-창립 멤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손병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최고로 유능한 선배이자 당시 관절센터장으로 계셨던 박루보 원장님께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저를 믿고 진료를 맡겨주신 환자분들 덕분에 귀중한 임상 경험도 쌓았습니다. 2017년 박 원장님께서 개원하며 병원을 떠난 후로는 제가 관절파트의 센터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훌륭한 원장님들이 합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관절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물론 지난 11년이 항상 쉽고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고,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당직과 야간근무는 여전히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예손병원이 의사로서 일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표원장님의 경영 철학입니다. 단기간의 이익을 쫓지 않고, 좋은 진료를 통해 결국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신념 덕분에 관절센터의 의료진들은 과잉진료 없이 정직하고 적절한 의료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병원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입니다. 3.0T MRI 두 대, MAKO 로봇, 대형 고압산소치료기, Carl Zeiss 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병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 뿐 아니라 수술실 기구부터 환자 삽입물까지, 의료진이 원하는 최고 사양의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부분입니다.

셋째, 수준 높은 의료진들과의 협진입니다. 예손병원은 관절 파트뿐만 아니라 수부 및 족부, 척추파트 등 세분화된 진료 분야를 갖추고 있어, 환자의 다양한 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4년 말, 의료계는 큰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 전달 시스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손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병원이지만, 앞으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골격계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손병원의 2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손병원
조영재 원장



축사

예손병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손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많고 인력은 적었기에, 주간 업무와 야간 당직이 겹치는 날이 잦았고,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간호사, 수술실 스태프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다섯 명으로 늘어나 야간 근무의 부담이 분산되었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다 집중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진 확충과 함께 병원의 역량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인증과 마취적정성 평가를 통해 수술 및 마취의 질이 한층 향상되었고, 이는 환자 안전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손병원에서의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은 중환자실이 없는 환경에서 고령 환자의 마취와 예후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하고 회복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회복 과정을 지닌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후를 세심하게 예측해야 했습니다. 필요 시에는 빠르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밤중, 심각한 수부 압계 손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상완신경총 차단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던 중 고칼륨혈증이 발생했고, 손상 부위가 넓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흉통과 심전도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대처해 환자의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었고,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소독을 받으러 온 환자가 저를 알아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느꼈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대퇴골과 정강이뼈가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지만 회복실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몇 달 뒤, 이 환자는 또 다른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친구를 데려와 “이 병원이 수술 잘합니다”라며 소개해 수술을 맡겼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느낀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깨 수술 중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팔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환자의 목이 급격히 부어오르며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즉각적으로 응급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며칠 뒤 기관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해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손병원은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술의 세분화와 전문성입니다.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근골격계 수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상 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다양한 수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둘째, 안전 중심의 마취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이 부위마취로 진행되어 안전성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여러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협력하여 최적의 마취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마취과 의료진의 근골격계 수술 마취에 대한 숙련도와 경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셋째,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수술 준비 단계부터 마취 계획 수립, 수술 후 관리까지 각 진료과 간의 협력이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도의, 마취과, 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환자의 안전한 치료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안전입니다. 수술 전 환자의 상태

축사

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마취 계획을 수립한 뒤, 수술 중에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통증 완화, 진정 치료, 정서적 안정 등을 더해 환자가 두려움 없이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최신 의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예손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의원으로 시작했던 병원이 이제는 수많은 환자와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손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모두는 늘 ‘예쁜 손’으로 환자들을 돌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손길로 진료하는 자세가 오늘의 예손병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병원이지만, 앞으로의 20년은 그보다 더 큰 도약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 역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예손병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했던 모든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예손병원
김태훈 원장
김태훈





목차

20주년 슬로건	3
발간사	6
축사	10
예손병원의 히스토리	
한눈에 보는 예손병원	26
연도별 히스토리	28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30
의료진 스토리	38
직원 스토리	42
예손병원의 도전과 열정	
꾸준한 연구	60
따뜻한 나눔	66
환자안전에 진심, 예손병원	7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2
정확한 진료를 위한 첨단장비	74
예손병원 성장	78
예손병원의 미래	
퀄리티를 지키는 선택	92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병원	93
기본의 가치, 미래의 변화	94
김진호 에필로그	
모든 순간이 지금, 예손을 만들었다!	100

YES 20년의 믿음
ON 근골격계 기준

/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 하고 있을 때
예손병원은 진료과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분화 진료시스템'은 예손병원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1

예손병원 히스토리

예손병원 히스토리

한눈에 보는 예손병원 26

연도별 히스토리 28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30

의료진 스토리 38

직원 스토리 42

예손병원 히스토리

/ 예손병원 발자취

2005년 예손 정형외과 의원으로 시작하여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예손병원의 시작

2005년 예손 정형외과 의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부외상의 특성상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병원에서는 병실부족과 수술실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 수술이 어려운 상황
이었고, 또한 수부외과 의사 혼자만으로는 정규 외래, 수술 외의 응급수술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수부외상에 대한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진료를
목표로 예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분화된 전문진료

2006년 2월 이후 수부세부전문의 3인의 협진으로, 응급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확립되었고, 같은 해 11월 척추센터, 2008년 관절센터,
2010년 족부센터의 전문의 합류로 척추, 관절, 수부, 족부 센터를 갖춘 정형
외과 전분야의 세분화된 전문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하나의 과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손병원은 오히려 진
료과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예손병원 발자취

대학병원들을 보면 척추, 관절, 수부, 족부, 외상 등으로 교수진들의 담당 분
야가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가 들면 허리만 아플까요? 사고가 날 때 손가락만 다칠까요?

물론 일부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저기 같이 아프
거나 다발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의료진의 협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형외과적 세분화된 진료 외에도 예손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입원 환자들
의 수술 전후 환자 관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척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접근이
보다 정교해졌고, 수술 후 재활을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내적 건강을 돌
보는 내과 전문의,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는 신경과 전문
의, 정확한 영상 판독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안전한 수술 환경을 책임
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각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협력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예손병원 미션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

예손병원 비전

협진 의료진간의 협진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하겠습니다. 의료진의 협진이
라는 가장 중요한 진료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 업무 협조를 통해 최선
의 진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매일 오전 7시 50분, 모든 정형외과 의료진은
증례토의, 저널토의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의대 및 포항공대
와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치료 방법 및 재료의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올바른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꾸준한 사회 봉사 및 환원활동을 하겠습니다. 병원의 발전은 환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봉사 및 환원 활동
을 통해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손병원 히스토리

/
한눈에 보는
예손병원
2005 - 2025

한눈에 보는 예손병원



첫 도약

확장

인정

새로운 성장

전문성 & 신뢰

2015.07
신축 이전

2016.12
산재우수의료기관 선정

2016.12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 수지접합 전문병원(37)

2018.07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2주기)

2019.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 평가 우수기관

2019.06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2020.03
국민안심병원 지정

2021.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 수지접합 전문병원(47)

2022.12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2022.07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3주기)

2024.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 수지접합 전문병원(57)

2025.01
예손병원 20주년

2006.11
병원급 확장(128병상)

2008.05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외과
전문병원 시범기관

2011.10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1기)

2014.08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1주기)

2015.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 수지접합 전문병원 (2기)

2005.01
예손병원의 시작
예손정형외과 의원

예손병원 히스토리

/
연도별
히스토리
2005 - 2025

2005.01
예손정형외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2006.11
예손병원 확장개원



2008.02
10만 고객돌파

2008.04
수술실 확장

2008.05
보건복지부지정 정형외과
전문병원 시범기관 선정

2008.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0.02
외래 및 입원실,
건강검진센터 확장

2010.04
MRI(자기공명영상기) 추가
설치 가동

2010.08
족부센터 확장

2010.11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2.03
3.1절 기념 부천 마스터즈
마라톤대회 의료지원

2012.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2.11
퇴원손상심층조 - 우수
병원표창
홀트아동복지회 - 캄보디아
소녀가장 의료지원

2005 - 2007

2008 - 2009

2010 - 2011

2012 - 2013

2007.01
MRI(자기공명영상기) 도입

2007.04
DIT(전신체열진단기) 도입

2007.11
충남 태안군 무료 의료봉사
수술용 현미경

2007.12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07.12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09.01
굿네이버스 사례아동 무료수술,
손변형 어린이 무료수술 캠페인

2009.02
외래진료실 확장

2009.03
부천의료특구 척추관절
전문병원 선정

2009.04
EMR 도입

2009.06
대표번호 1666-7582 개통



2011.04
5대 암 검사 실시

2011.05
소사노인복지회관
무료진료봉사

2011.10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 선정



2011.11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50만 고객 돌파

2011.12
부천시 표창장 수여(이웃 사랑
실천 및 장애인 복지 증진)

2013.03
부천 마스터즈 마라톤대회
의료지원,
제 1회 예손 근골격계 심포지엄,
제 19회 경인골절연구회

2013.04
산재근로자 심리재활 지원
사업 '희망 찾기 프로그램'

2013.06
한미중소병원상 대한중소
병원협회장상 수상

2013.09
해외의료진 연수 교육
(베트남 의료진 2명, 카자흐스탄
의료진 2명, 일본의료진 2명)

2013.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연도별 히스토리

2014.08
의료기관 인증 획득

2014.11
포항공대 합동 세미나,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4.12
고관절 치환술 진료량
평가 1등급



2016.03
인천·경기 척추 포럼

2016.08
서울의대 정형외과 수부
동문 컨퍼런스

2016.09
최소침습척추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2016.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7.03
산재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7.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4 - 2015

2016 - 2019

2020 - 2021

2022 - 2024

2015.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



2015.02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5.03
재활의학과 확장

2015.06
100만 고객 돌파

2015.07
신축이전병원 진료시작

2015.09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4병동)

2015.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8.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
접합 전문병원



2018.07
의료기관 인증 2주기 획득

2018.10
부천 복사골 마라톤 대회
의료지원

2019.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
평가 우수기관

2019.0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1.01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
접합 전문병원



2021.03
뇌신경센터 확장

2021.04
전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3.0T MRI 추가
도입, 64 Channel CT 도입

2021.07
코로나백신 접종 위탁의료
기관 지정

2021.09
200만 고객 돌파

2021.12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
조사 유공기관 표창



2020.03
모범 납세자 선정, 대통령 표창
국민안심병원(외래) 지정,
척추, 수부 진료실 증설

2020.06
3.0T MRI 도입, 원미경찰서
장 감사장 수여(외사자문
협의회)

2020.09
코로나19 극복 공로인정
표창장 수상

2022.03
MAKO로봇 무릎인공관절
수술기 도입

2022.07
의료기관 인증 3주기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
평가 우수기관

2022.10
수부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2022.11
고압산소치료가 도입

2022.12
혈류검사기 도입,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최우수 의료
기관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예쁜손, Yes-On

20년의 믿음,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기까지

예손정형외과의원에서 예손병원, 그리고 지금의 예손병원

개원을 결심하다

‘수부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필요해’

대학병원 근무 시절, 응급실로 요골 골절과 손가락 절단을 동시에 입은 여성 환자가 들어왔다. 당시만 해도 수부 외상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은 많지 않았고, 매일 쏟아지는 환자들을 정신없이 돌보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그날도 끝없이 이어지는 수술 속에서, 누적된 피로에 김진호 원장은 더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다.

다음 날, 병원에 없는 김진호 원장에게 전날 수술한 환자의 환부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황을 확인하니, 환자의 요골 골절과 손가락 절단은 동시에 치료되어야 했지만, 당시 손가락 접합술만 먼저 진행되었고 팔의 골절 부위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골절로 이미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한 약물이 투여되자 출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흐르면 근육까지 괴사하게 되는 초응급 상황이었다.

김진호 원장은 당시 수도권 외곽에 머물고 있었고 병원으로 복귀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정형외과 의료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할 수 없이 전공의에게 골절 부위를 고정하도록 지시했고, 다행히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2주가 지나, 김진호 원장은 해당 환자의 피부 봉합 협진 요

청을 받았다. 처음엔 예상하지 못했던 요청이었다. 담당의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김진호 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환부의 출혈을 막기 위해 절개된 부위는 부종이 심해져 정상적인 피부 봉합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피부가 수축돼 봉합이 지연된 상태였다. 해당 부위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접합했던 손가락의 근육은 괴사되었다. 손가락은 기능을 잃었고 외형 복원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진호 원장은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끝까지 수술을 진행해야 했다는 후회와, 그날 병원으로 돌아갔어야 했다는 복잡한 생각들이 이어졌다. 이후 그는 매일 환자를 찾아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조금씩 봉합을 이어갔다. 환자가 회복된 후,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건넸지만 김진호 원장은 받을 수 없었다. 환자의 상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끝내 선물을 거절하고 긴 시간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당시 병원에는 여섯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수부 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수부 외상은 단순히 치료를 잘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했고, 당직 시스템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진료가 지연되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고, 환자들은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병원을 찾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손가락 접합술 환자 사례 역시, 구조적으로 전문성이 분산된 당직 체계 안에서 생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김진호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5년 동안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에 이르렀다.

“수부 외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생각을 대학병원 체계 안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김진호 원장은 사표를 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예쁜손, Yes-On

예손YESON의 시작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2005년)

대구 선배의 병원을 돕던 시절의 경험과 대학병원에서 배운 노하우, 개선할 점들을 연구했고 “수부 진료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모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수부외상 진료에 특화된 병원을 구상하며, 개원할 병원의 모습이 어렵듯이 그려졌다. 이후 ‘수부외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다.

당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공동 스텝으로 있던 2년 선배 정준모 선생님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스텝으로 있던 이영호 선생님과 함께하고자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개원할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까지 퇴근 후 매일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는 것이 하루 패턴이었다.

그렇게 결정된 지역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영향권이 있는 중간 지점인 부천이었다.

건물 계약 후 본격적으로 의료장비를 넣고, 인테리어를 하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김진호 원장이 직접 챙겼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개원준비가 차츰 틀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같은 뜻을 가진 세 명의 의사가 “수부외상 전문병원을 개원해, 환자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외치며 시작했다.

그러나 준비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영호 선생님이 갑자기 서울대로 발령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한 명이 빠지며 어려움이 생겼지만, 정준모 선생님과 “둘이서라도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개원 준비를 이어갔다. 그리고 2005년 1월 10일, “예손 정형외과의원”이 문을 열었다.

“예손 정형외과의원”, 원래의 “예쁜 손”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Yes-On ‘항상 열려있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

두명의 수부외과 전문의로 시작한 의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다.’ (2005-2006년 초)

연중무휴 수부외상 의원을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개원 후에는 정준모 선생님과 번갈아가며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당직을 서며 병원에서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집에 가더라도 대부분 밤 9시가 넘어서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접합수술을 하고 나면 이미 밤은 깊었고, 집에 가서 겨우 서너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그렇게 매일 밤을 새다시피 지냈지만 환자가 많지도 않았다. 다른 의원들처럼 모든 환자를 받지 않았고 당시 수부외상 전문병원은 개념조차 생소했다.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는 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는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하루 평균 10명 남짓, 그렇게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환자수는 50여명 채 넘기지 못했다.

병원 경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그해 6월에는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가 스웨덴에서 개최됐다. 대학병원의 수부외과를 전공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당시 가천의대 길병원에는 이충훈 선생님, 이재훈 선생님,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있던 동기, 이대 목동병원에 있던 후배까지 모두 출국했다.

그런데 그 시기부터 병원에 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외래 환자는 여전히 적었지만 수술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유는 얼마 후에 알게 되었다. 대학병원의 선생님들이 출국했지만 환자는 의료진들의 사정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당시 선생님들 사이에서 예손 정형외과 의원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고 선생님들은 출국 전 수부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예손 정형외과 의원으로 보내도록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고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환자 유입이 많아진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의사 두 명이 감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당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즉시 충원을 계획했다. 그때는 수부외과학회 이후에도 대학병원들과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고 가천의대 길병원과도 그 중 한곳이었다. 문득 평소 뜻이 잘 맞다고 생각했던 수부외과 이충훈 선생님이 떠올랐다. 그는 수부 진료에 진심이었고 예손 정형외과의 이념과도 잘 맞았다. 정준모 선생님과 나는 이충훈 선생님에게 합류를 제안했고, 그렇게 예손 정형외과 의원은 둘에서 셋으로 팀을 확장하게 되었다. 개원 1주년이 막 넘어가던 시기였다.

예손병원으로 확장을 결심하다.

'전문적인 수술환경이 필요하다'

의원에서 병원을 확장하게 된 계기는 지방에서 올라온 65세 남성 환자와의 만남이었다. 그는 다리가 절단된 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다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의 마지노선인 8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절단해야 했지만, 보호자의 간곡한 부탁에 접합술을 시도하기로 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다음 날부터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접합한 부위의 근육이 괴사되면서 콩팥이 손상되었고, 밤 8시경 급기야 심정지가 왔다. 정준모 선생님과 돌이켜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했다.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다리도 빨리 다시 절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의원에는 이 모든 상황에 놓여진 환자를 케어할 만한 시설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 지인이 있던 종합병원에 급히 연락 후 이송했다. 김진호 원장은 그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 절단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케어를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보호자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다행히도 얼마 후 환자는 살아났고 무사히 퇴원했다.

그 사건은 김진호 원장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의욕만으로 수술을 감당할 수는 없으며, 수술 후 회복을 책임지기 위해선 체계적인 협진과 전문 의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등과의 긴밀한 협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Post-op 관리의 중요성과 정형외과의 세분화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과의 협업 없이는 환자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진료가 어렵다는 사실 앞에 깊은 고민이 시작됐다.

그러나 고민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다.

결국 김진호 원장은 의원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했고, 병원 확장을 통해 전문 협진이 가능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개원 1년 10개월 만인 2006년 11월, 예손 정형외과 의원은 '예손병원'으로 확장되었다.

의원에서 병원으로 규모를 확장하다.

'정형외과 진료의 세분화가 본격화되다'

(2006.11.24~2015.07.23)

병원 확장 때는 수술장비부터 의료장비, 재활치료실, 입원실까지 모두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넉넉히 들어갈 큰 건물이 필요했다. 부천 지역내 곳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자리는 나지 않았다. 당시 김진호

원장은 매일 새벽마다 상동 호수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건물 전층 임대 공고가 나있는걸 우연히 발견했다. 건물 전층 임대는 흔치 않으므로 그 즉시 부동산으로 달려가 계약을 체결했다. 큰 건물 안 환자들이 사용할 넉직한 공간과, 업그레이드 된 의료장비들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렘이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건물 일부의 비어있던 공간으로 먼저 병원을 시작하면서 기존 건물에 있던 다른 사업장들이 계약 종료가 될때마다 병원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점차 병원의 입지를 다지며, 약대오거리의 예손병원이 있는 곳. 이라는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다.



실까지 모두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넉넉히 들어갈 큰 건물이 필요했다. 부천 지역내 곳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자리는 나지 않았다. 당시 김진호

예손병원으로 확장을 결심하다.



병원으로 확장 후 세분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척추센터, 관절센터, 족부센터의 순서로 정형외과 진료가 세분화되어 정형외과 병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전문적 치료와 높은

의료 수준 덕분에 점차 인지도를 높아가게 되었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해당 위치 지대가 낮아 여름엔 침수가 되기도 하고, 주차장 문제 등 시설적인 부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8년 차에 임대료 이슈가 발생했다. 결국 10주년이 되는 해에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했다. 다시, 시작이다.



약대오거리 침수사진



여름 지하주차장은 침수, 지상주차장은 눈 치우기 힘들던 시절

예손병원이 춘의역 2번 출구 앞에 오기까지.

신축 이전 계획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이사를 위해 여러 건물을 알아보던 중 처음 고려했던 곳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다. 당시 검토한 부지는 부천시청 인근으로, 전체 연면적이 약 1,200평에 불과했고 확장 가능한 공간은 주차장 부지뿐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부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명분 없이 병원에 매각될 가능성은 낮았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도면까지 준비했지만, 협소한 대지의 제약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도면까지 그려놓고 취소됐던 신중동 지역 공사 도면

그러던 어느 날, 부천시 마라톤 후원 관련 일정으로 도연례 실장과 함께 이동하던 중, 춘의동 대로변에 위치한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저 건물 보기 좋다."는 김진호 원장의 말에 따라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은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았다. 고민이 깊어가던 시점, 도연례 실장이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부동산으로부터 그 건물이 새롭게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도면까지 준비된 상태였지만, 김진호 원장은 다시 판단의 기로에 섰다. 춘의동 건물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7호선 춘의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병원이 위치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김진호 원장이 늘 강조해 온 “병원은 눈에 잘 띄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했다.

당시 건물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입주해 있었는데,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건물의 가치가 다소 하락한 상황이었다. 매도 측은 빠른 명도와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좋은 조건까지 제시되자 병원 측은 바로 다음 주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전 결정 전, 내부에서도 병원 이전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뉘었고, 여러 차례 대화를 거친 끝에 예손과 함께할 인원과 새로 떠날 인원이 정리되었다. 그렇게 내부 정리를 마친 후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다시 부동산을 찾았지만, 조건이 달라져 있었다. 금액이 인상되었고, 명도 역시 병원 측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김진호 원장은 기존 결정을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명도와 관련해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매도 측은 입주 병원 정리에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건물 내부의 일부 병원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있었고, 상황은 복잡했다. 특히 한 병원은 외부로부터 불법 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행정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해당 병원은 철수하게 되었다.

또 다른 입주 병원은 그 시점에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자발적인 퇴거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건물 정리가 가능해졌고, 병원 확장 준비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 예손병원 (2015.07.24~현재)

2015년 7월 24일, 역시 이사날에는 비가 오면 잘된다고 했던가! 그동안 타는 듯한 더위를 뒤로하고 하필 이사하는 날 비가 내렸다. 이사할 때 목표는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진료의 연속성은 유지하도록,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사를 시작했다. 단 하루만에 병상을 모두 옮기고 입원 환자의 진료도 놓치지 않았다. 당시 의료진과 직원 모두의 노력을 지금 생각해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이전 당시 193병상, 57실)

춘의동 병원, 관절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서의 특별한

정형외과 병원 특성상 사지가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 최소화화 환자 동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했다. 1층에는 엑스레이 촬영실이 한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 예손병원



에서 촬영하고 몇 발자국만 걸으면 곧바로 외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층 재활치료센터의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게 잡고, 벽 없이 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수술 후 많은 환자들이 물리치료센터에서 벽면은 통유리로 제작해 채광을 통하여 밝은 환경에서 치료 받는 것을 고려했다.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는 한 공간에 만들었는데 환자들이 함께 치료를 받으며 서로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단순 물리치료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원결심부터 현재 병원까지

예손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분야별 세분화로 철저히 관리한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병원은 환자가 믿고 맡겨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예손병원은 병실 복도가 넓다. 복도를 넓게 한 이유는 정형외과 환자들 대부분 누워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타 병원에 비해 복도를 3m로 넓혔다. 병실의 경우에도 각 병실 간의 흡배기 분리 시스템을 설치했다. 2021년에는 전체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3년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입원 환경을 조성했다. 병실 4층에는 아름 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은 외출하기 어려운 원내 입원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녹지 속 휴게 쉼터로,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름 공원을 위해 수술실은 5층으로 올렸다. 나중이라도 추가 확장을 위해서는 수술실은 4층에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나 정원을 환자에게 오로지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과감히 결정했다. 그만큼 4층은 오로지 환자 중심의 자연 친화 설계로 계획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환자 동선을 우선적으로 고민한 다음 직원 동선을 고민했다. 춘의동 이전 건물에는 임상병리사들이 내려와서 입원 환자를 검사하고 다시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환자가 직접 가도록 보낸다. 환자는 편리한 이동을, 직원들은 환자를 데려오

기 편하도록 엘리베이터를 1층 입원준비실 쪽에 설치했다.

전반적으로 계획했던 의료진 수가 넘어 2020년에는 외래진료실을 증설했다. 수부센터 외래 진료실은 3개에서 4개로

늘렸으며, 관절센터 외래진료실 2개에서 4개로, 족부 외래진료실은 1개에서 2개로 늘려 환자들이 더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근골격계 진료의 기준은 '믿음직한 진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신뢰를 주는 이미지다. 이는 곧 브랜드로 연결된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믿음직한 진료를 기대하며 병원을 찾는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수급 시니어 의료진과 그 아래로 약 20년 차이가 나는 주니어급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시니어급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주니어급 의료진이 배우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병원의 높은 진료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각 파트당 한 명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시니어급 의료진이 은퇴하게 될 경우,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급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환자 진료 경험이 많다면 진료하는데 문제 없지만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다.

김진호 대표원장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과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번은 친구의 사촌 동생을 진료하며 건봉합술(tenorrhaphy)을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펠로우로 근무하던 시절, 해당 수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실제로 수술하기 쉽지 않았다. tendon the construction, 쉽게 말해 없는 걸 만드는 건 해봤지만 잘린걸 봉합해 본적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이런 유형의 환자가 오지 않는다. 교과서를 통한 지식은 있지만 실전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의료진들은 목표를 위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형외과를 비롯한 전문 진료 분야에서는 5년 이상 실전 경험이 필수적이다. 5년간 겪게 될 환경들은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이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수술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윗세대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주니어급 의료진인 처음 접하는 복잡한 진료와 수술 케이스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시니어급 의료진의 조언과 케어를 받으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기억해, 정면교사와 반면교사 할 것

춘의동 병원, 경영자로서 더 나아가다



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예손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기억해주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정형외과에 관해서는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부(손)와 족부(발) 분야에서는 현재로서 따라올 병원이 없다고 자신한다. 이 같은 차별화는 단순히 진료 과목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격을 높여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의료의 본질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지양한다. 필수 의료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면, 환자들은 우리 병원의 진료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환자를 설득해야 한다면, 예손병원은 오직 정형외과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결과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예손병원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의료진 간의 협력이 조화롭다. 주니어급 의료진은 어려운 수술이나 복잡한 케이스에 부딪히면, 망설임 없이 시니어 의료진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은 믿음직해진다. 환자는 어떤 의료진을 만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진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곧 예손병원의 브랜드다. 또 한가지 믿음직한 진료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진료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 예손병원은 과거 분원 설립을 고민한 적이 있으나, 퀄리티 컨트롤을 문제로 최종적으로 분원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료는 프랜차이즈처럼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퀄리티가 유지되지 않으면, '믿음직한 기준'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

환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병원, 예손병원이 답이다.

환자들이 근골격계 관해서는 예손병원 가는 게 당연하다고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들 중에서도 정형외과 진료 볼 일이 있다 싶으면 예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족들도 진료를 보낸다. (김진호 대표 원장을 포함해 의료진들도 예손병원으로 보낸다고 한다.) 어느 정형외과 병원을 가도 이만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병원이 흔

않다. 진짜 중요한 건 격을 높여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의료의 본질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지양한다. 필수 의료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면, 환자들은 우리 병원의 진료의 차별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환자를 설득해야 한다면, 예손병원은 오직 정형외과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결과로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환자가 진료 선택에 망설이는 경우, 다른 병원을 경험해본 뒤 다시 예손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예손병원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담당 의료진이 해당 질환의 전문가인지, 전공 분야가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손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분야별 세분화로 철저히 관리한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병원은 환자가 믿고 맡겨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병원의 주인공은 의료진과 직원들이고, 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 병원을 20년 동안 키워온 비결이다

의료진 스토리

병원의 주인공은 의료진과 직원들이고,
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예손 의료진

예손병원과 인연이 된 의료진들

병원 확장 초창기, 서울대병원에서 예손병원으로 정형외과 펠로우가 파견된 적이 있었다. 여러 병원을 순환 중이던 그는 예손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김진호 원장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그가 서울 백병원에서 스텝으로 근무하던 중, 예손병원에서 족부 진료 전문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침 족부 분야에서 경험이 깊은 문정석 선생님의 이직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을 김진호 원장에게 전달해주었다.

문정석 선생님은 정형외과와 해부병리 두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무릎 관절과 족부 분야 전임의 과정을 모두 수료한 의료진이었다. 문정석 선생님은 족부뿐 아니라 관절 진료에도 열정이 있었기에 예손병원 합류를 앞두고 관절과 족부 두 분야를 함께 진료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당시 관절센터는 이미 박루보 선생님이 메인 진료를 맡고 있었고, 반면 부천 지역에는 족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김진호 원장은 이러한 지역 진료 환경과 병원의 진료 운영 체계를 고려해, 족부 진료만으로도 충분한 환자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문정석 선생님에게는 족부 진료를 전문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문정석 선생님은 예손병원 외에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병원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진료환경과 김진호 원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예손병원 합류를 결정했다. 김 원장은 훗날 ‘왜 다른 병원 대신 예손을 선택했는지 궁금했다’고 회상했다.

김진호 원장의 예상은 적중했다. 족부센터 진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불과 한두 달 채 걸리지 않았다. 부천에 족부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 없었고, 해당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증상을 연구하고 파악해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 진료를 해줬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는 높았다. 이처럼 김진호 원장은 과를 만들고 의사를 총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생기면 과를 만든다. 진료과의 유무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 중요하다고 믿는 김진호 원장의 판단과 소신이다.

관절센터 조영재 선생님은 수부 펠로우 출신으로 김진호 원장과의도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사이였다. 예손병원에 합류한 건 병원 확장 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다. 당시 조영재 선생님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나오게 됐고 오랜 시간 지켜봐 왔던 후배의 유능함을 잘 알고 있던 김진호 원장은 예손병원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예손병원은 수부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젊은 펠로우급 의료진의 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김진호 원장은 수부 학회를 통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다. 얼마 뒤, 이재훈 선생님께서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정석 선생님을 추천받았다. 조선히텔 스타벅스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정석 선생님은 “핸드가 제일 좋고, 앞으로도 핸드만 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밝히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만남 이후, 이정석 선생님은 예손병원 수부센터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합류한 김홍균 선생님은 한림대학교병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미 수부외과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수부를 세분화해 진료하고 연구할 수 있는 병원을 모색하던 중 예손병원이 수부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

예손병원과 인연이 된 의료진들

력을 느꼈고, 깊은 고민 끝에 예손병원 수부센터에 합류하게 되었다.

박진성 선생님과 인연은 더 오래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상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이던 박진성 선생님은 수부 학회 Young Surgeon Session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당시 발표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김진호 원장은 발표가 끝난 후 “나중에 서울에 오게 되면 연락 달라”는 인사를 남겼다. 약 8년 후, 예손 수부센터의 젊은 의료진들이 이직하며 진료 공백이 생기던 시점, 박진성 선생님께서부터 연락이 왔다. 업무 강도가 높아 모두가 힘들던 상황에서 도착한 박진성 선생님의 연락은 말 그대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당시 대학병원과 동문 선배가 운영 중인 병원으로부터도 좋은 제안이 있었지만, 예손병원은 “오직 핸드만 진료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방향성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에, 결국 예손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재훈 선생님의 합류는 더욱 자연스러웠다. 이정석 선생님을 추천하며 예손병원과 첫 인연을 맺은 이재훈 선생님은, 핸드 분야에서 이미 명망 있는 전문가였다. 기존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나와 새로운 거취를 고민하던 중, 동문병원으로의 합류를 고려했으나, 오직 수부에 집중된 예손병원의 진료 환경과 김진호 원장의 제안에 이끌려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준하 선생님은 당시 펠로우로, “평생을 핸드만 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의료진이었다. 그 열정은 수부센터의 정체성과 잘 맞아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예손 수부센터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예손병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철학을 지닌 의료진들이 공감과 결단, 그리고 의료적 신념을 공유하며 함께하고 있다.

특히 수부 분야에서는 세부전문의가 가장 많이 포진된 병원으로 진료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각 세부 센터들 또한 분야별 특화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밀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지금의 예손병원을 이뤄냈다.

당직시스템을 확고히 하다

750 컨퍼런스 다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양보할 없는 것, 당직시스템이다.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직시스템 유지가 좋은 건 아니다. 의료진들이 밤새 당직을 서고 일요일에도 당직을 하면 매출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닌, 매출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에 기반한 선택이자 예손병원이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정체성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진이 밤새 당직을 서고 다음날 진료와



의료진 스토리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수술까지 이어지면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당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신규 의료진 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병원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던 인재들이 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하고, 야간과 주말 당직까지 서야하는 조건 때문에 예손병원에 오는 것을 망설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놓친 인재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을 설득하고 함께 운영 방식을 맞춰가며 당직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며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긴 예손병원만의 당직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예손병원에는 스타가 없다 20년 성장비결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김진호 원장의 울퉁은 신념을 좀 더 풀어보자면 예손병원은 대표인 김진호 원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의 성공은 대표가 잘하는 것에 달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가에 있다. 의원은 혼자 잘하면 되는 곳이지만, 병원은 다르다. 함께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병원이 제대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김진호 원장이 해야 하는 건 과거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과 병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이 성장하려면 환자가 특정 의료진을 찾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병원이 대표 원장 중심이 되고, 밑에 있는 의료진들을 스타로 키우지 않으려 한다. 시간 들여 스타로 키운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면, 병원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호 원장은 반대로 생각한다. 대표원장이 뒤로 물러서고, 의료진이 중심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스타들이 병원에 남고 싶어 하는 것이다. 김진호 원장은 의료진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대신, 의료진이 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료진들이 스스로 병원의 스타가 되고, 그곳에 남고 싶어지면 병원은 저절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병원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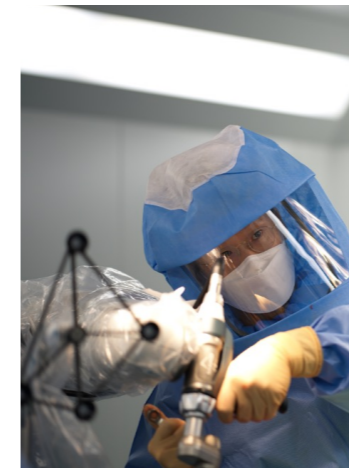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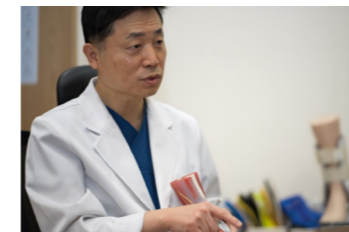


의료진들은 남아 있고, 그들은 “일하기 좋은 병원”이라고 평가한다. 그것이 철학이자 병원을 키운 비결이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철학을 적용한다.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 일은 끝난다. 이후에는 다시 풀어주고 스스로 일하게 한다. 처음에는 관계를 세심히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이후에는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준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아는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된다.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바꿔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다.

예손병원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고 한다.) 그들이 스스로 일하는 환경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예손병원과 인연이 된 의료진들



직원 스토리

예손병원에 입사한 첫해 2005년 3월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20살이 되었다. 예손병원은
자녀와 함께 성장한 병원이 되었다.



재활치료팀
최관택 팀장

예손병원은 나에게 일과 삶의 의미가 함께 하는 공간이다.

예손병원에 입사한 첫해 2005년 3월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20살이 되었다. 예손병원은 자녀와 함께 성장한 병원이 되었다.

내가 부천에서 처음 근무한 곳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천 시청 맞은편에 있는 예수 성형외과였다. 수지접합환자의 재활을 하는 성형외과 물리치료실 이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에 예손 정형외과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가 예손정형외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20년이 지났다.

2005년 당시에는 개인병원에 의료진이 2명이상인 경우는 드물었고 물리치료실은 두명의 부서원만 근무했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오픈 초기였기 때문에 원장님 두분이 병원을 비울 수 없어서 병원 회식을 병원 옥상에서 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식 중에 팔 절단 환자가 응급으로 와서 회식 중에 난리가 났었다. 개인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절단환자를 두 분 원장님이 수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그랬지만 근무시간이 참 길었다. 그때는 오후 3시가 되면 '근무 시간 절반 지났구나'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때 당시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였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약대동의 예손병원으로 첫 번째 이사하면서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로 변경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예손병원이 지금의 춘의동으로 확장되기 까지 2번의 이사를 했다. 이전 재활치료실은 지하에 있어서 마음먹지 않으면 바깥 환경을 퇴근할때까지 한번도 볼 수 없었지만 현재 이곳 3층으로 옮겼을 때 탁 트인 유리창과 원미산의 보이는 뷰는 한강부럽지 않았다.

약대 오거리에 춘의동으로 옮기면서 수없이 도면위에 공간을 그리고 지우며 콘센트 개수와 위치 높이까지 고려하며 도면을 그렸다. 그리다 보면 10cm 공간이 안나와 도면을 다시 그리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했다. 그래서 인지 지금의 재활치료실 공간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공사하면서 작업치료실 구조 변경 할 때는 새로 세워진 벽을 부수어 다시 세우기도 했고 전체 구조를 다시 바꾸기도 했다.

처음 춘의동에 왔을 때는 부서에 결혼한 직원이 나 혼자였는데 현재는 예손에 와서 결혼한 부서원 8명과 근무하고 있다. 예전에는 부서에서 결혼하려면 예손재활치료실을 떠나야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차 신입 때 들어와 지금까지 함께한 부서원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병원이 규모가 확장된 만큼 확장 이후에는 타병원에 대한 벤치마킹 및 교육지원을 통해서 예손재활치료실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병원차원의 많은 투자가 있었다. 또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오시면서 좀 더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수술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병원과 부서의 확장으로 인해 부서원들마다 다른 치료방법들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을 통합하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 지금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서원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했고 갈등을 빚기도 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서원들에게 서운하기도 했고 과 부족한 병원의 지원에 속상하기도 했다. 때로는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기도 했었다. 그런 부분에 부서원들이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해결책은 소통이라 생각해 우리 부서는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지난 시절을 떠올려 보면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 너무 많다

부서 동료들과 회식대신 함께 1박2일 MT를 다녀온 일이며 마라톤 동호회로 부천 체육관에서 병원직원들끼리 모여 연습한 일이며, 등산 동호회에서 등산하러 갔다가 술 많이 먹고 실수한 기억도 남는다.

새로 입사한 직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병원 스태크스를 끌고 부서원들과 병원 스태크스를 끌고 금요일 업무 끝나고 포항까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밥만 먹고 새벽에 다시 올라와 토요일 근무하고 그때는 운전을 나 밖에 할 줄 몰라서 졸면서 위험하게 혼자 운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다. 부서원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 공감하며 함께 했던 일들, 그런 기억들이 더 오래 간다.

얼만 전까지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퇴사 후에도 병원에 꼭 두손 가득 무겁게 먹을 것 들고 찾아와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부서원들이 그렇게 해주었다.

예손 병원에서의 20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하고 병원이나 부서에 도움만 주는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때

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임상 5년차였고 그때에 치료실 실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서가 커져 가면서 힘들었던 것은 나에게도 가르쳐 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직도 나 자신도 배울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나의 성장보다는 부서원들 자신을 성장시키고 돌아보는 일에 도움이 되는 팀장이 되고 싶고 인연을 소중히 해서 퇴사 후에도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부서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예손병원의 재활치료실은 더 커지고 더 발전하고 더 세로워 질 것이다.

최근 10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예손병원은 지금까지의 2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과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세팅하고자 한다.

직원 스토리

예손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경영기획실
도연례 실장

■ 첫인상

예손병원에 입사한 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엔 의원으로, 아직 정돈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직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며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새로웠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점차 안정되고 발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지원 동기

처음 지원했을 때는 심사청구 담당자로 지원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의 심사청구 전문성을 키우고,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개원 초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이어서 저는 병원의 다양한 부서와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쳐 총무부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부에서는 부장으로써 회계, 인사, 구매 파트를 총괄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내고 현재는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그동안 쌓아올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로 병원 운영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예손병원 입사 후 기억나는 경험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모든 직원들이 맡은 직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전 개원을 준비해 많이 바빴던 시점인지라,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업무였던 심사청구를 담당했다가, 또 어느 날은 홍보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행정직, 심사팀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시절 경험으로 지

금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병원 문화

정형외과 의원 시절, 아직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소소한 거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 꼽으라면 출근 후, 업무 시작 전 다 같이 티타임을 가졌던게 기억납니다. 일상을 나누면서 텐션업 후 일과를 시작하는 건 짧지만 아주 즐거웠습니다. 소통의 시간이 쌓일수록 직장 동료가 아닌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갔습니다. 당시 모닝 티타임은 많이 바쁘더라도 가급적 유지하기위해 노력했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건 우리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 개인 성장

아시겠지만 예손병원은 예손 정형외과 의원에서 약대오거리 예손병원으로 이전, 약대오거리에서 춘의동으로 확장 이전, 두 번의 이전을 통해 과도기를 거치며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의원에서 병원으로 증별을 변경하고 규모는 해마다 커지며, 직원 수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확실한 자리매김까지 하며 제 업무 역량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개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장비 도입,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찾아보며 시행해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다양했던 경험들을 통해 더욱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견문을 넓혀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책임감과 리더십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직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팀워크를 배우고, 병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전문적이고 성숙한 예손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 기억나는 이벤트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장기근속여행”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기근속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 충전은 물론이거니와, 교류가 적어 친해지기 어려웠던 타부서 직원들과 서로 알아가고 조금이나마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며, 동료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병원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시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큼니다.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예손병원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기회가 다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동료와의 관계

개원 초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친밀감 그 이상을 넘어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며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때의 끈끈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함께 나누며, 예손병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주던 동료들의 모습은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지금도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근무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라면 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 병원 두 분야를 전국 최초로 획득했을 때입니다.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발표 직후 직원들과 기쁨으로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밤낮으로 부딪히고 배운 노력의 결과였으며, 우리 병원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취를 통해 예손병원이 정형외과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는 병원의 성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장이기도 했기에 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이 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원동력의 근원

원동력은 단연코 튼튼한 경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온 배경에는 효율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영진은 항상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각 부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병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일관된, 혹은 그 이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관리 또한 예손병원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의 도입, 연구 개발 투자, 직원 교육과 복지 향상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곧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이어졌고, 병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기반 덕분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원동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해 예손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리더십 스타일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강압적이지 않

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운영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 건 장기간 근무를 통해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열린 마음과 소통을 통한 리더십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도전 극복

예손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도전과 극복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의 빠른 성장에 비해 저의 업무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느꼈고, 이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에 힘쓰며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과 병행하며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 행정 관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실제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점차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다방면으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팀워크와 협력

한 부서의 리더로 근무하면서 팀워크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 구매, 전산, 인사파트라는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모두가 항상 열린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팀워크와 협력 덕분에 우리팀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자율성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직원 스토리

예손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었습니다.



영상의학팀
안한주 팀장

지만 춘의동으로 확장이전 후에는 넓어진 공간과 MRI 3대, CT 1대, 흉부 장치 포함 일반촬영장치 5대, 골밀도 장비, 적외선 체열 장비, 유방촬영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도입해 더욱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학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제가 요청을 받을 때도 기꺼이 협조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이외에도 병원 내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예손병원에서 근무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활동이 많이 줄었지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원들 간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업무 외적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며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손병원이 점차 확장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의원에서 병원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손병원은 병원으로 확장된 것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두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며 부천을 넘어 전국, 더 나아가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손병원의 의료진 역량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예손병원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세 번째 MRI 장비가 도입되었을 때입니다. 종합병원에서도 MRI 장비 3대(그것도 두대는 3.0T)를 보유한 곳은 흔치 않은데, 대표원장님께서 세 번째 MRI 장비를 도입하신 덕분에, 불편하신 환자분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빠른 처치 및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손병원은 그동안 규모와 의료 역량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손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예손병원이 더욱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나에게 예손이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직원들 간에 친분으로 가족 같은 직장입니다.

■ 예손병원과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예손정형외과 시절, 당시 의원이었던 예손병원이 병원급으로 확장되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면접 기회를 얻게 된 저는 문제해 실장님과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예손병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과는 달리 예손병원은 외과 수술이 많은 전문 병원으로 다양한 환자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많은 배움을 안겨주었고 환자의 양상에 따른 다양한 검사를 통해 폭 넓은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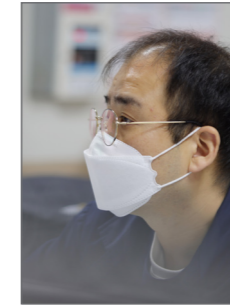
예손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었습니다. 각 부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병원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는 제가 예손병원에서 팀장으로 영상의학팀의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20년간 예손병원의 재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내동 예손정형외과에서 약대동 예손병원을 거쳐 지금의 춘의동 예손병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근무하다보니 예손병원의 성장과 함께해 왔습니다. 병원이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특히 검사 장비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손정형외과 시절에는 일반촬영장치 한 대로 대부분의 검사를 진행했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예손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친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영상의학팀
박주영 대리

■ 처음 느꼈던 예손병원의 조직 문화와 분위기

오래전 병원에서 QI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1기는 팀장님들이, 2기는 그 다음 직급자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교육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입사 초기,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단순히 ‘검사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기술직이라는 정체성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QI교육을 통해 저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병원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고, 마지막엔 제가 느낀 바를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난 기술직이 아니라 서비스 직이다’ 였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제가 업무를 수행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검사 하나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고, 여전히 어렵지만 환자들과의 소통에서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

예손병원에서의 다양한 기억 중 가장 크게 남는 건 앞서 얘기한 QI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열어주고 이곳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면, 5년 장기근속을 기념해 다녀온 일본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그동안 조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했던 원장님들과 접점이 적었던 수술방 선생님들, 린넨실 여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그때만 큼의 소통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병원이 성장하는 만큼 해야 할 개개인의 역할이 넓어져 서로 얼

■ 나에게 예손이란?

제2의 고향: 첫 독립과 첫 가정을 이룬, 홀로서기 후 모든 것의 시작

■ 앞으로의 기대

예손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친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 장기간 재직하며 체감한 변화

예손병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라면 영상의학팀의 모든 장비를 다루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하나씩 장비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팀 내에서 모든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손정형외과 의원에서 현재 춘의동 예손병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경험이자, 행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술은 꾸준한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병원이 의원에서 지금의 규모로 확장되었던 역사적 순간들 속에 제가 함께 있었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한 것은 그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니깐요. 병원의 발전사에 모두 참여한것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원 스토리

꿈을 마주할 시간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료와의 관계

누구나 그렇듯이, 예손병원에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는 있었습니다. 약대동에서 춘의동으로 확장 이전하던 때였는데, 규모를 늘려 이전한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준비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새로운 장비가 한꺼번에 도입되고, 직원 수도 몇 배로 늘어나는 등 새로운 환경과 급작스런 변화를 적응하는 시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적응하는 1-2년 동안은 동료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에 다 함께 치열하게 견디며 그 시기를 버텼습니다. 그때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옛 말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지금의 영상의학팀이 결속력도 강해지고 더 단단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개인 성장

제가 생각하는 예손병원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항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만큼 그 흐름에 맞춰 매일같이 공부하며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저 역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페이스북 참조)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그럴 것이, AI시대잖아요. 의료기술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 속도도 남다릅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에 디지털화 될 것이라 생각 못했고 이제는 AI가 검사를 도와주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제 기술이 뒤처지지 않게 계속 해서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할 거고 저도 그에 맞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도전해 나갈 겁니다.

■ 직장에 대한 애정

가족들 중 예손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 경험이 있는 직원 이라면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의료진들과 간호사, 진료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가족인 저보다 더 걱정하고 보살펴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표현 못했지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을 챙겨주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이자 동기부여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아닌 보호자로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돌보는 병원의 문화를 느끼며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저 또한 환자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기 근속의 원동력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가족을 꼽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제 힘의 근원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 예손병원에서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전우애로 똘똘 뭉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 직장 동료 이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유대감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저에게 준 힘을 바탕으로 예손병원에서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 기억나는 순간

5년 전쯤이었나? 워크샵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김진호 대표원장님의 눈물을 봤거든요. 술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장면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대표원장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병원과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평소 공적인 자리에서만 봐왔던지라 다소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 날 마주한 섬세하고 진심어린 모습은 병원에 대한 저의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 변화와 성장

예손병원에 근무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병원에서는 혼자 일하다가 이제는 저를 포함해 17명의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깐요.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의 입, 퇴사를 보았고 때로는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팀 내 잦은 변화는 늘 저를 불안하게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내자!’ 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정심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예손병원에서 제가 이룬 가장 큰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이 제 인생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화를 다스리는 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전보다 좀 더 ‘어른’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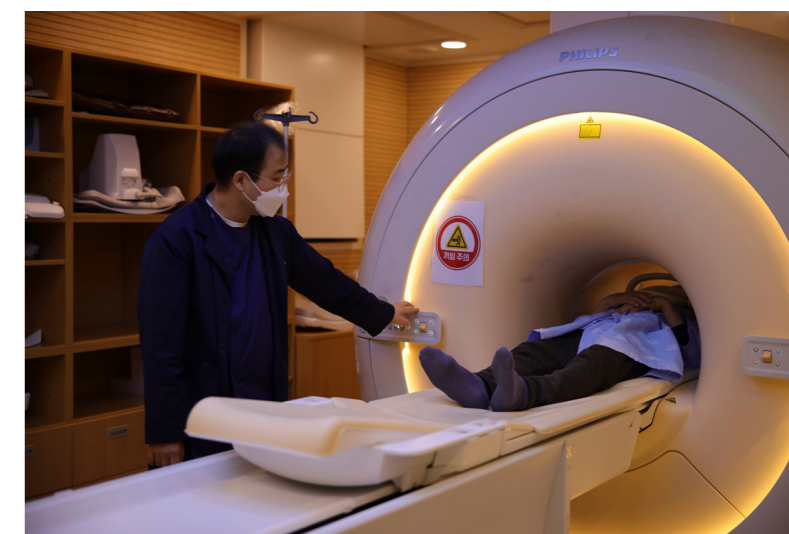
■ 이직을 고려하지는 않는 이유

이직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겁니다. 누구나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어 하나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 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료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원장님들. 이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이 저를 예손병원에 남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이런 따뜻한 유대감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예손인들과 더 오래,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함께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제게 주는 가치는 더욱 깊어지고 있거든요. 동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예손병원 30주년 연보에도 장기근속 직원으로 인터뷰 하고 싶습니다. (웃음)

■ 이루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제가 시작할 때 앞으로의 기대로 ‘예손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목표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상의학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손에서 일하는게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보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바라보시면 많은 동료들이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젠 더 이상의 이별 없이, 지금의 팀원들과 함께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섬세해서 한 명이 나가면 주변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이 흔들림 없이, 항상 기쁜 마음을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팀이 될겁니다. 예손병원이 이런 바람을 실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안녕!



직원 스토리

처음 병원에 받을 디딜 때의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간호부
백성숙 실장

■ 나에게 예손이란?

저는 예손병원과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해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받을 디딜 때의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이 흘렀고 예손병원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케어하며 느낀 보람과 감동, 동료들과 함께한 노력과 협력. 이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예손병원은 저에게 늘 행복과 보람을 주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매 순간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손 정형외과에서 약대오거리 예손병원으로 이전, 약대오거리에서 춘의동으로 확장 이전까지 총 두 번의 이전을 거쳤으며, 각종 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다양한 상황, 인증 준비 등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 값진 교훈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 지원동기

예손 정형외과 시절, 저는 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출근했던 날의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따뜻한 환영과 격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저는 저의 역할을 찾아가며, 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점차 더 큰 책임을 맡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첫인상

예손병원의 첫인상이자,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 대표원장님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손병원의 원장님들은 항상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진료 능력은 물론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뜻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원동력이 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처음 느꼈던 예손병원 조직문화

예손병원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병원의 부서들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하나의 팀처럼 일하는 분위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업무도 근무 환경도 모두 다른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문제를 찾고 공유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팀워크를 느꼈습니다. 업무뿐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인원이 많지 않고 아주 적었던 시절이라, 전 직원이 모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조사부터 기쁜 일이나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쓰다 보니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 원동력의 근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손병원 지원 동기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언제나 직원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이런 지지 덕분에 많은 도전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시절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되었고, 그 자신감은 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확장의 순간

2013년 어느 날, 2015년을 목표로 약대오거리에 있던 병원이 춘의동으로 확장 이전 계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와 모든 직원들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이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은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은 직접 사용할 업무 공간을 꾸미고 선택했으며, 새로운 장비와 시설들을 도입하는 등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병원 내 분위기는 분주함과 동시에 한층 더 활기찼습니다. 마침내 2015년 7월 25일, 춘의동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을 했고 병원을 둘러보며 정형외과 의원 시절도 생각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더 넓어진 공간에서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편의점, 카페, 공원, 예손홀 등 직원 공간 개선과 더 나아진 복지 제도는 업무 만족도도 향상시켰습니다.

■ 개인적인 영향

춘의동으로 이전 후 병원이 확장되며, 저의 개인 역량은 병원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외부 활동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위원회 활동은 동종업계 전문가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었고, 이는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예손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매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으로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반복하며, 의료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인증 준비를 시작했을 때, 사전 정보 없이 하나하나 물어가며 진행했고 쉽지 않던 인증을 준비하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첫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3주기까지 무탈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예손병원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2020년 간호간병비율이 1:10으로 상향되었던 때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부의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고 간호사로서의 보람과 만족도도 높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2021년에는 전체 병동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손병원이 환자 중심 케어를 제공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간호부는 더욱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간호부의 리더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앞으로의 기대

부천에서 시작된 예손병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인정받는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손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은 전국 어디서나 인정받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부천 지역 내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치료를 위해 방문합니다. 굳이 먼 길 떠나 예손병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진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돌아가는 환자들을 보고 있다면 그 기쁨은 정말 겪어보지 않는다면 모를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손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과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직원 스토리

원장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믿었고, 따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손병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실
문재호 실장

당시, 저는 근무 중이던 의료기관이 폐업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근무지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고, 예손정형외과는 병원급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하며 경험이 있는 인연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흥미가 점차 관심으로 바뀌었고, 결국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병원에 처음 합류했을 때 어떤 업무를 맡게 되었고, 초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원무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기존 담당자들은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개인 준비도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확장 준비로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병원의 개원을 알리는 홍보 업무였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게첨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는 위탁업체가 추천하는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지만, 예손은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시간대별로 게시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아, 원장님 정말 철저하시구나! 잘못 선택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덕분에 작은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는 업무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업무 스킬로 남아 있습니다.

■ 처음 느꼈던 예손병원의 조직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예손정형외과 시절, 전체 직원은 약 15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대동으로 병원급 확장을 준비하면서 정보 공유를 위해 회의를 자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가감 없이 소통하는 긍정적인 문화였습니다.

특히, 대표원장님을 비롯해 미화여사님, 주차반장님, 조리여사님까지 모든 직원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팀워크와 가족적인 조직 문화 덕분에 병원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 나에게 예손이란?

예손병원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예손병원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가치가 제 삶의 방향과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기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 고민하기보다는, 매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 예손병원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느낌은 어땠나요?

예손병원과의 첫 만남은 제게는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 아이의 100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예손정형외과가 약대오거리 예손병원으로 확장 이동을 준비하고 있어 다소 분주한 분위기였지만, 전체적인 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특히, 모든 직원들이 밝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100일이었던 작고 소중한 첫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함께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저에게는 남다른 감화로 다가옵니다.

■ 예손병원에 처음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오정구 약대오거리에 서울대 출신 의료진이 모여 개원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선배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선배가 예손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 다른 곳이 아닌 예손병원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인가요?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편도 아닙니다. 특히, 이직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성향이죠.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깊이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손정형외과의 김진호 대표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원장님의 가치관과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손병원과 함께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이 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예손병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예손병원에서 오랫동안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원동력은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원장님부터 신입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태도가 조직 내에서 ‘언제나 맑음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화는 부서를 오랜 기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직의 건강한 문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리고 이 스타일이 팀과 부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손자법에서 언급된 세 가지 리더십 스타일 용장, 지장, 덕장 중 용장 스타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저는 지장과 덕장을 혼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지장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고, 덕장은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혼합한 중간 스타일이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모습이 부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팀과 부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 오랜 기간 동안 동기를 유지하고 팀을 계속해서 동기 부여하는 데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저는 업무를 선택하고 실행할 때, 가장 먼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 팀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잘 정리하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느낍니다.

의견이 모두 정리되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되물어 확인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항상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은 없지만, 이 과정 자체가 팀원들의 동기를 유지하고 동기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팀내에서 강력한 협력과 팀워크를 구축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라!’와 같은 명령형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또한, 저는 거리의 미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심’과 ‘참견’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팀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되 불필요한 참견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건상 개선이 어렵더라도 팀원들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팀 내에서 강력한 협력과 팀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예손병원이 확장되는 과정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감정을 설명해주세요.

예손병원이 확장되는 과정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저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손병원에 ‘심리적 지분’이 있다고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손병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꺼는 아니지만, 내꺼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제가 예손에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심리적 지분’을 경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앞으로도 예손병원과 저의 발전에 계속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직원 스토리



■ 병원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성취는 무엇인가요?

병원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06년 예손정형외과에서 약대오거리로 예손병원으로의 확장 이전과, 2015년 약대오거리에서 춘의동으로 다시 확장 이전 두 번의 이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확장 이전을 몸소 실행하며 문제없이 진행했던 것이 큰 성취로 기억됩니다.

특히 2015년 춘의동으로의 확장 이전 준비는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약 6개월간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타일, 벽지, 인테리어 마감재, 화장실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복도가 좁아 벽을 통째로 다시 부수기도 했고, 마감된 벽을 뚫어 꼼꼼히 시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는 오직 '예손병원이 쾌적하고 환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장 이전 준비는 앞서 언급한 '내꺼는 아니지만, 내꺼라는 마음가짐'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확장된 병원에서의 미래와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재 병원은 각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들이 있어, 각 부서의 팀원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병원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가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원대한 비전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매일의 작은 성과가 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사팀
이유선 대리

■ 나에게 예손이란?

첫 직장,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앞으로의 기대

앞으로 더 변화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 졸업 후 첫 직장 예손병원

예손병원을 첫 직장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벌써 예손병원에 입사한지 18년이나 되었네요!
저는 부천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예손병원을 접할 기회가

직원이 기억하는 예손

먼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실천하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며 "이왕이면 부천 지역 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당시 부천 지역 내에는 여러 병원이 있었고 비교적 자주 접한 예손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사지원을 하게 됐으며 사회초년생의 떨리는 마음과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입사했어요.

■ 입사 후 첫 느낌과 담당했던 업무 소개해주세요

첫 느낌... 사실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납니다. 입사 후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일에도 일회일비하면서 정말 24시간이 부족한 매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신세계였습니다.

■ 새로운 환경 적응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할 수 있었던 나만의 방법은?

"새로운 환경"이라는 자체가 무섭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적응해가며 보냈던 시간들이 해결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험심사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끝없이 변화하는 의료 관련 고시와 정책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몇 번씩 확인하면서 업무에 적용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에게 "둘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 장기간 예손병원에 근무한 이유

보험 심사 업무를 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은?

심사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급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진료비 산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책

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 특성상 장시간의 집중력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집중력도 많이 늘어났고요.

■ 18년 장기근속, 한 회사에서 근무한 이유는?

18년 장기근속, 짧지 않은 시간인데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장기근속자 시상과 함께 포상도 받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사실 같은 조직에 오랜 기간 있게 되면 비슷한 환경에서 머물러 있다는 느낌 때문에 다른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손병원은 오정구 내 동 시절부터 춘의동으로 이전한 현재까지 정체 없이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미션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다른 고민 할 틈도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성장이 있다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성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제가 생각한 성장은 "먼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실천하자" 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나아가다보면 지금보다 더 성장한 제가 현실이 되어 마주하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앞으로 이르고 싶은 목표나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급변하는 의료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험급여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유연한 판단력도요!

/
연구와 도전,
진심으로 지켜온
예손병원의 변화와 성장

2

예수병원의 도전과 열정

예수병원의 도전과 열정

꾸준한 연구	60
따뜻한 나눔	66
환자안전에 진심, 예수병원	7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2
정확한 진료를 위한 첨단장비	74
예수병원 성장	78

예손병원의 꾸준한 연구

외부학회 연구 학술활동(2023-2024)



대한미세수술학회 · 대한수부외과학회 ·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합동 심포지엄



서울의대정형외과학교실 동문 교실 합동컨퍼런스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차 국제학술대회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의대정형외과학교실 동문 컨퍼런스



인천부천골절연구회

부울경족부족관절학술대회



경희의료원 DPS 수부외상 합동증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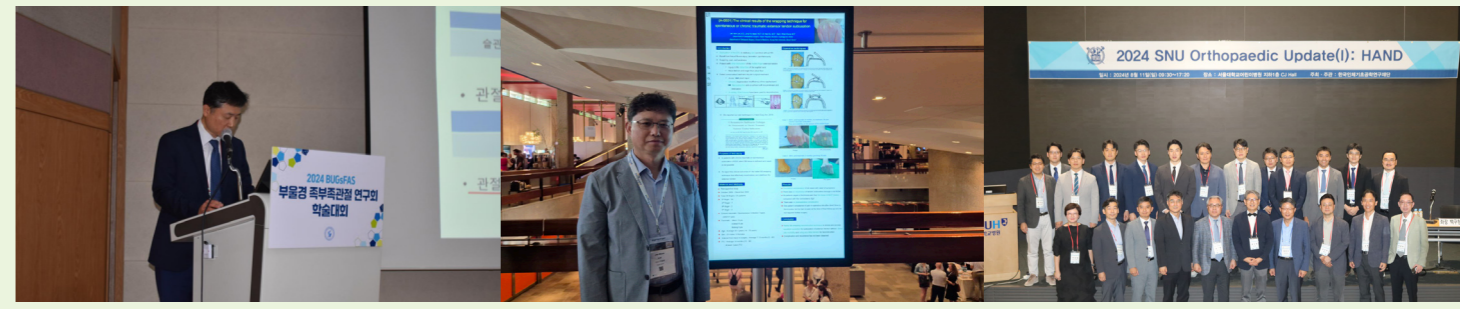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춘계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스포츠손상 심포지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개원의 심포지엄



부울경 족부족관절연구회 학술대회

FESSH 유럽수부외과학회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SNU orthopaedic update



APOA HULS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

APFSH 아시아-태평양수부외과학회연맹 정기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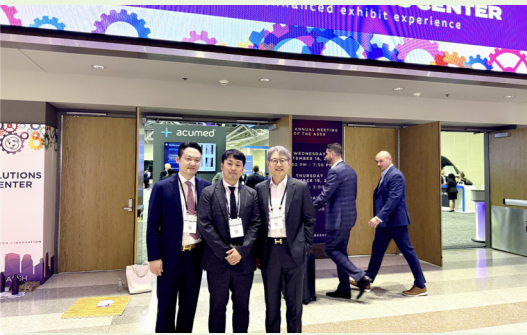
인천부천골절연구회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SNU orthopaedic update

예손병원의 꾸준한 연구

외부학회 연구 학술활동(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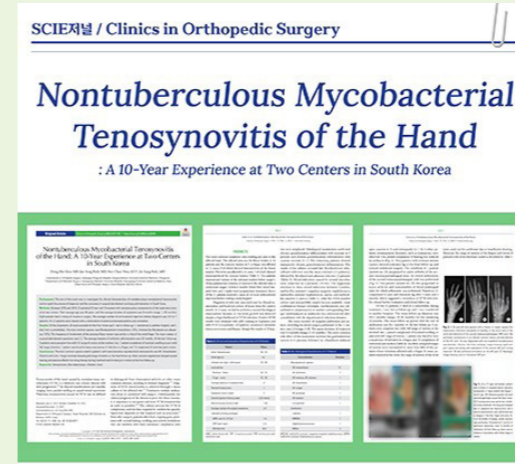
ASSH 미국 수부외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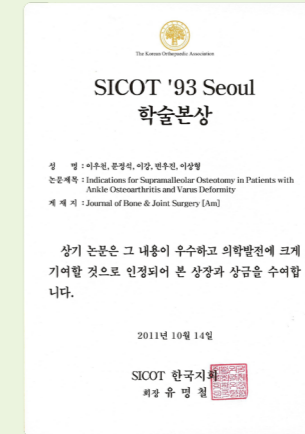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세부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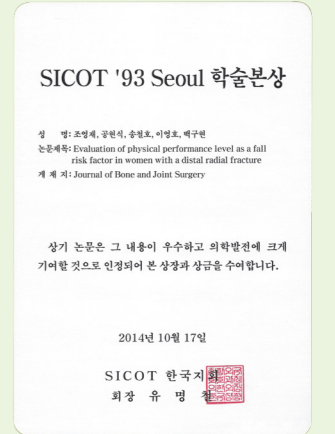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SCIE저널 박진성



논문 SICOT '93 Seoul 학술분상 - 문정석, 조영재



KSRM 대한미세수술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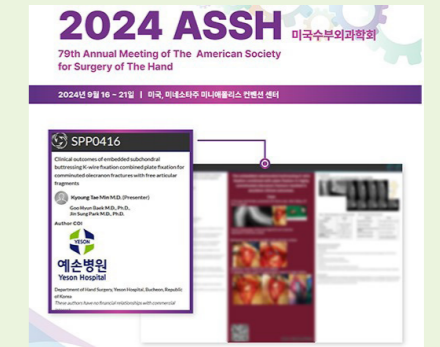
KSAPOA HULS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 수부상지 추계학술대회



논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MDPI 이재훈



논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MDPI 이재훈



논문 ASSH 백구현, 박진성, 민경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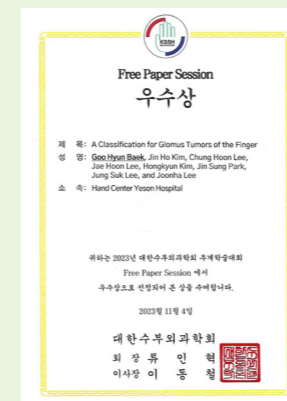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인천부천골절연구회



Mako summit



논문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Free Paper Session 우수상



논문 Wiley Online Library 이재훈

예송병원의 꾸준한 연구

외부학회
연구 학술활동
2023 - 2024

2024

12.01 순천향대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좌장 백구현

11.30 경희 수부 연구회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참석 이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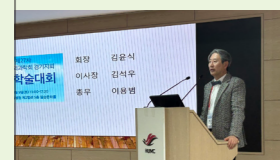
Mako Summit
연자 조영재

11.26 인천부천 골절연구회
연자 조승현
참석 이준하

11.16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문정석

11.09 KSAPOA HULS 아시아 - 태평양 정형외과 수부상지 한국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이재훈
연자 이준하

11.03 대한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좌장 김진호
좌장 이재훈
연자 박진성
참석 민경태



11.02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김진호
좌장 백구현
좌장/연자 이재훈
참석 이종훈
참석 김홍균
참석 박진성
참석 이정석
연자 이준하
연자 민경태

10.26-27 KSRM 대한미세수술학회 국제학술대회
이사장 취임 김진호
좌장 백구현
좌장/연자 이재훈
참석 이종훈
참석 김홍균
연자 박진성
참석 이정석
참석 이준하
참석 민경태

10.19-20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이준하
참석 박은석

10.17-19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백구현
좌장 이재훈
연자 민경태
E-poster 이준하
참석 조영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채유식

09.27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세부 전문의 연수강좌
연자 백구현
좌장 이재훈
참석 민경태

09.19-21 ASSH 미국 수부외과학회
공동연구 백구현
공동연구 박진성
연자 민경태

09.08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개원의 심포지엄
좌장 문정석
참석 박은석
참석 김규황

09.07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KSSPN 학술대회
좌장 백구현
회장 취임 이재훈
참석 이정석
참석 민경태

08.27 인천부천 골절연구회
연자 조승현
연자 박은석
참석 문정석
참석 이준하

08.11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SNU Orthopaedic Update(I) : HAND
좌장 백구현
좌장 김진호

07.13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당뇨발 관리 심포지엄
참석 김규황

06.24 FESSH 유럽수부외과학회
연자 이재훈

06.23 부울경 족부족관절 연구회 학술대회
연자 문정석

06.08 경희 수부 연구회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연자 이정석

05.30 IFFAS 세계족부족관절학회
참석 문정석

05.25 대한미세수술학회·대한수부외과학회·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합동 심포지엄
좌장 백구현
좌장 김진호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참석 김홍균
참석 민경태

05.22-24 유럽정형외과학회 EFFORT Congress
연자 김희중

05.09-11 대한고관절학회 학술대회
연자 김희중

04.26-27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
참석 김희중

04.18-20 대한정형외과 추계학술대회
참석 김희중

04.14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참석 채유식

04.07 대한골다공증학회 추계 연수강좌
참석 조승현
참석 김규황

연구 - 학회활동, 연구성과

03.23-24 대한스포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이준하
참석 박은석

03.17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참석 임석진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
참석 채유식

03.10 대한도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채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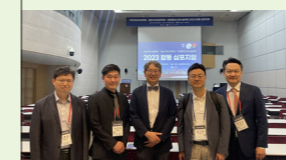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 학술대회
참석 조재훈

03.09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춘계학술대회
연자 백구현

03.08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자 문정석

경희의료원 DSP 수부이상 합동 증례 토론회
연자 이준하

01.28 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합동 연수강좌
참석 박재범



2023
11.30 인천부천 골절연구회
연자 이재훈
연자 문정석

11.17-18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문정석

11.11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동문 컨퍼런스
연자 이종훈

11.04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김진호
연자 백구현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연자 이준하

10.28 대한미세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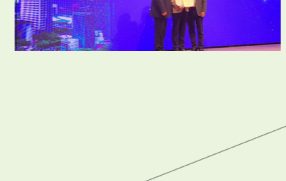
10.12-14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연자 김희중
좌장 백구현
좌장 이재훈
연자 이준하

09.03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개원의 심포지엄
연자 문정석

09.02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학술대회
연자 백구현

07.15 충남대학교 정형외과 심포지엄
좌장 백구현
연자 이재훈

07.08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스포츠손상 심포지엄
좌장 문정석



05.20 대한미세수술학회·대한수부외과학회·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합동 심포지엄
참석 백구현
참석 김진호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참석 이준하

05.19-20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좌장 문정석

04.29 서울의대 정형외과학교실 동문-교실 합동 컨퍼런스
연자 김희중

04.01 대한수부외과학회 일산 개원의 연수강좌
좌장 백구현
연자 이재훈
참석 이준하

03.11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춘계학술대회
좌장/특강 백구현

01.29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수부상지 진료 최신지견 심포지엄
연자 이재훈

06.25 부울경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연자 문정석

05.31 - 06.03 APFSSH 아시아-태평양 수부외과 학회연맹 정기 학술대회
연자/특강 백구현

05.25 인천부천 골절연구회
연자 조승현
연자 박은석

05.20 대한미세수술학회·대한수부외과학회·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합동 심포지엄
참석 백구현
참석 김진호
연자 이재훈
연자 박진성
참석 이준하



따뜻한 나눔

/
예손병원 사회 공헌활동
2015 -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사랑의 헌혈



저소득 농아인 가족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어버이날 캐네이션 선물



부천시 자원봉사의 날 - 알뜰장터(소.나.기) 참여 및 기부



부천 복사골 마라톤대회 의료지원 및 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 지원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구급함 전달

예손병원 사회 공헌활동

기타 나눔 활동

보건약단체 사회공헌협회의 서울시립은평의마을 시설비품 기증

코로나19_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 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부천시민 자전거대축제 의료지원

산재환자 재활 및 심리재활 지원

부천개인택시조합체육대회 의료지원

지역 학생 병원 견학 프로그램 진행

홀트아동복지회 캄보디아 소녀가장 의료지원

선천시 수부이상 아동, 사고로 인한 손변형 아동 무료수술

태안군 의료봉사 활동

수상

보건약단체 사회공헌협회의 대상 수상

경기도 지사 _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_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여

부천시 표창장 _ 소외계층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따뜻한 나눔

예손병원 사회 공헌활동



태안 의료봉사활동

예손병원 개원3주년 태안 의료봉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



선천성합지증무료수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코로나선별진료소활동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자전거 대축제 의료지원



송년의 밤 및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부천 복사골마라톤대회 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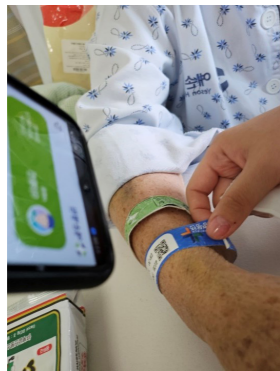
환자안전에 진심, 예손병원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적정관리 -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활동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인식이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개선한 활동을 꼽으라면, 바로 환자 안전 QI 활동과 감염관리 활동이지 않을까.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등의 의료질 향상 활동은 병원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예손병원은 지난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준비 시기부터 적정진료 [QPS팀, 감염관리팀]의 업무를 세분화 하여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매년 환자안전 주간행사 캠페인을 통해 직원 및 환자에게 환자안전 문화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교육을 시행하며,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 - QPS팀의 세심한 환자안전 관리



QPS팀은 무엇보다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과 진료 프로세스 개선 활동, 환자안전 사고 예방활동 등에 집중하여 의료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였다. 환자 안전에서는 작은 오류라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엇보다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정형외과 환자의 특성상 환자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낙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을 변화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자안전 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근접오류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근접오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자 안전 문제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도록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도입한 하이카디도 환자안전 활동의 일환이다. 하이카디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부착하는 환자 상태 모니터링 기기로 전문 간호인력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수술 후 환자안전 관리 향상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병원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의료과정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 및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하페스티벌

환자안전 - 감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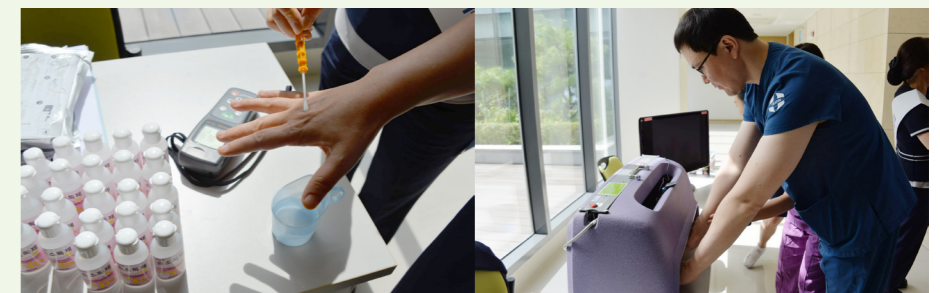
감염 관리는 안전한 병원의 필수 조건 - 감염관리팀의 전문성 강화

병원 감염관리의 주체인 감염관리팀은 2018년 시작하여 2019년 감염관리 부문 인증을 수검을 받으면서 체계를 정립하였다. 의료법 기준 감염관리실의 설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 인증의 기준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 감염 예방 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 1명, 전담 간호사 1명의 총 2명의 전문인력으로 감염 예방 관리료 1등급에 해당하며, 그에 맞는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예손병원은 감염관리팀은 다른 종합병원, 대형병원들과는 다른 '정형외과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써, 중환자실 중심의 감염관리가 아닌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환경관리, 기구의 세척 관리, 소독 및 멸균 절차 관리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인 손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의 감염관리 인식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간호부와 감염 관리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연 2회 감염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의료관련 감염 감시 체계(KONIS)의 수술 부위 감염 감시와 손위생 부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2024년부터는 질병관리청 주관의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에 참여하여 원내 다제내성균 감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는 팬데믹의 경험, 인구의 고령화, 의료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예손병원 감염관리팀은 본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들 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차별성과 특별함

예손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축적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완성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 병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간호 서비스를 통해 환자 보호자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천 병원급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샴푸 서비스



워커바로 이동하는 모습

예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01

환자 맞춤형 간호 시스템

병원급 간호사 표준 배치비율은 1:12 (간호사 한 명당 12명의 환자)인데 예손 병원은 1:10의 배치비율로 상향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손병원의 입원 병동은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따라 세분화된 간호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더욱 정밀하고 세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02

입원환자의 철저한 관리

예손병원은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동 경로와 병동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고 운영한다. 면회객 제한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보호자 및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03

디지털 간호 시스템 도입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디지털 간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하이카드를 도입하여 심장관련 질환 환자와 고위험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MR을 연동한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혁신을 적극 도입하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04

환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

예손병원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환자를 위한 샴푸서비스는 스스로 머리를 감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위생관리 강화와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개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제로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진료를 위한 첨단장비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무균수술시스템(크린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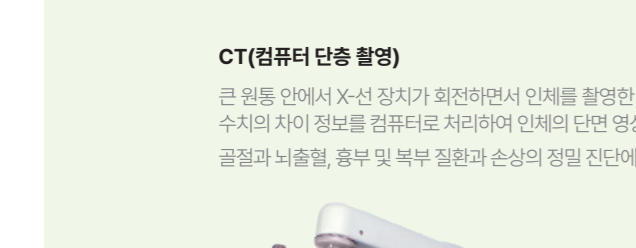
수술 중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수술 공간을 고도의 무균환경으로 유지하는 특수 수술 설비입니다.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의 온도, 습도, 조도, 압력 기류의 분포와 속도 등을 일정범위 내로 제어합니다. 크린룸 수술시스템으로 환자는 최적의 상태에서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전자석과 인체에 무해한 고주파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내의 수소 원자의 핵 공명현상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받아 각 조직과 구조물들의 공명현상의 차이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분석해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을 구성하는 장비입니다. 관절질환(손, 발, 무릎, 어깨), 척추질환, 뇌, 종양 진단에 효과적이며 현존하는 영상검사 중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초고화질 3.0T MRI 부천 병원급 최초 도입!



CT(컴퓨터 단층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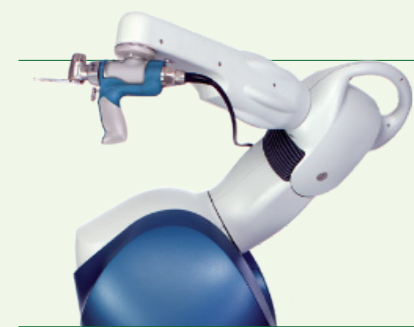
큰 원통 안에서 X-선 장치가 회전하면서 인체를 촬영한 후 몸의 각 조직들이 흡수, 투과하는 방사능 수치의 차이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골절과 뇌출혈, 흉부 및 복부 질환과 손상의 정밀 진단에 중요한 장비입니다.



MAKO로봇 인공관절수술기

미국 FDA승인을 받은 스트라이커社. 수술 로봇(마코 스마트로보틱스)은 의사의 전문성과 로봇의 정확성이 결합한 수술로 입체 영상 구성, 정확한 수술계획 수립을 통한 인공관절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숙련된 전문의가 환부를 파악하고 관절 변형을 측정해 수술 계획을 그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 팔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의사의 팔을 보조하여 작동합니다.



고압산소치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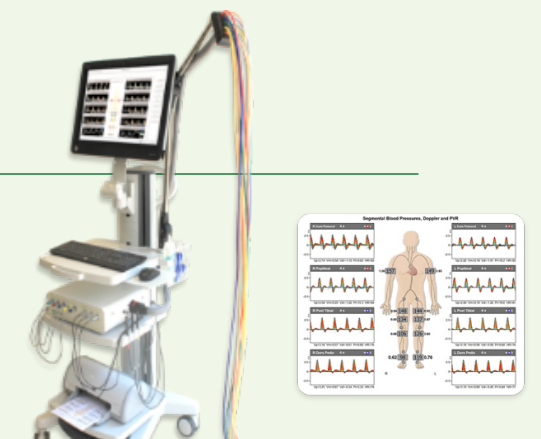
만성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급 최초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다인용, 1인용)를 도입했습니다.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2기압 이상) 상태에서 100% 산소를 인체에 공급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혈액과 조직 내에 높은 산소 농도를 유지시켜 다양한 질환 회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병원 보유 장비

혈류검사기(Falcon)

빛과 초음파 등을 통해 신체의 미세혈류의 흐름을 측정하고 자세 변화나 온도 변화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세혈관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기입니다. PPG, Doppler, ABI 등의 검사 방법이 시행되며 혈류 파형과 압력을 측정하여 혈관의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PACS(디지털 의학영상정보 시스템)

X선, CT, MRI, 초음파 검사 결과, 위-대장내시경 사진, 정형외과 관절경 사진, 수술실 카메라 사진 등을 디지털 영상자료로 저장하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자료를 확대, 회전, 조건 변화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자료 복사도 CD 한 장에 모두 가능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며 필름 및 현상액이 없어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압증기멸균소독기_VSC-360L

대형급의 사각형 챔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Water Ejector에 의한 진공 System은 멸균실 내부를 -0.9bar이하의 고진공을 형성하여 완벽한 멸균효과와 건조효과를 구현합니다. Bowie-dick Test & Vacuum Test의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Micro Processor에 의해 제어되며 멸균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멸균온도, 압력, 시간 등의 모든 파라미터가 LCD 모니터를 통하여 표시되어 완전멸균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저온플라즈마 멸균기

빠르고 안전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로서 과산화수소 가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멸균 후 인체에 유해한 잔류물이 전혀 남지 않아 사용자 및 수술환자에게 안전하며, 고가의 의료용 기구에 손상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멸균합니다. 멸균 부산물이나 물과 산소밖에 남지 않는 친환경 멸균기입니다.

US(초음파 진단)

초음파를 몸 안에 투시하여 조직의 밀도 차에 따라 초음파가 흡수 반사되는 정도를 영상화하는 장비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부 질환 등 내과적 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정형외과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전하며 검사가 비교적 간편하며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어 진단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병원에서는 내과, 정형외과에서 총 4대의 최신 초음파 기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BMD(골밀도 측정)

골밀도 측정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악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자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환자의 뼈의 양을 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라는 값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정상인의 골밀도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 수치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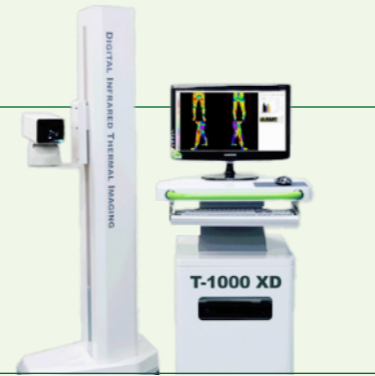
본원에서 사용하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EXA)은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척추와 대퇴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 방법이 간편하고 빠르게 검사 값의 정확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료를 위한 첨단장비

DITI(적외선 체열 진단)

적외선 체열 진단이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자외선을 통한 열분포의 변화를 촬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및 질병부위를 컬러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판별하는 검사방법입니다.



DR(디지털 X선 촬영기)

DR(Digital radiography)은 중간 매개체 없이 촬영장비 자체적으로 X-Ray영상을 바로 디지털 영상 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detector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촬영 후 바로 모니터 화면에 뜨는 영상을 컴퓨터로 이미지를 조정하고 PACS시스템으로 전송하므로 보다 신속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C-arm(X선 투시 촬영기)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X-Ray장비로 C-자 모양으로 된 기계입니다.

X선 투시 영상을 동영상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속성 이물질 제거나 수술용 금속 삽입과 제거, 골절 수술과 같이 뼈를 수술하거나, 척추 신경 주사 치료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예수병원에는 4대의 C-arm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MICROSCOPE(수술용 미세 현미경)

수술용 미세 현미경은 수술부위를 10-25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 장비입니다. 미세한 신경,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수지 접합수술)과 척추수술(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에 사용됩니다.

예수병원에서는 두 대의 최신 수술용 미세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rovison zero G system

인공관절 치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무균 수술실 시스템입니다.

수술실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 거르고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여 공기 중의 세균 수를 줄이는 장치와 우주복처럼 생긴 헬멧과 특수 재질의 수술복으로 된 Provison zero G system으로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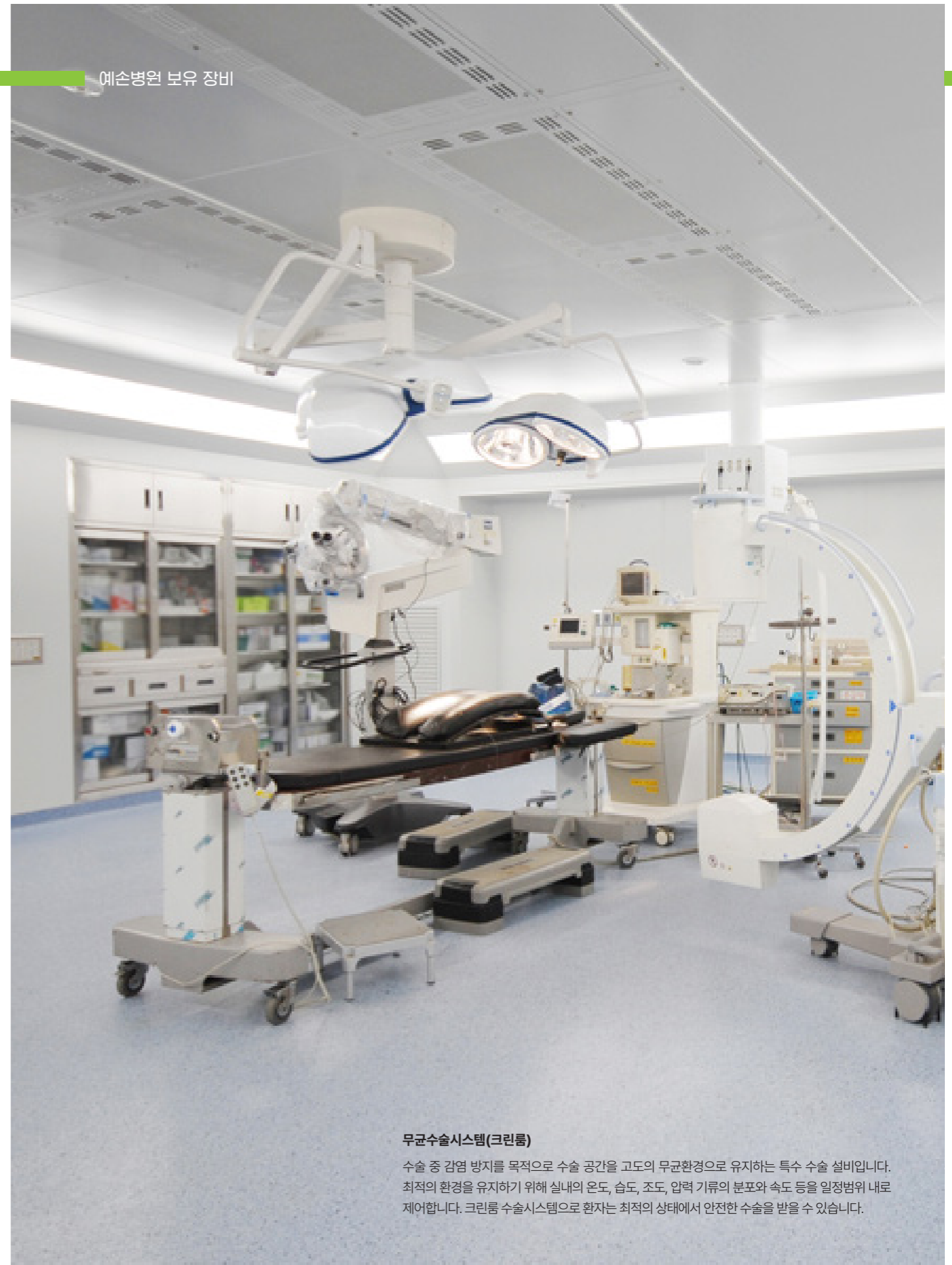


TCD(뇌혈류 초음파)

초음파Probe를 이용하여 내두개골 동맥(Intracranial arteries)과 외두개골(Extracranial), 말초동맥(Peripheral)의 혈류 순환관계를 측정하고, 디지털화 되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며, 이를 통해 전문가가 환자의 대뇌 혈류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비 침입 혈관(Non-Invasive Vascular) 검사 장비입니다.



예수병원 보유 장비



무균수술시스템(크린룸)

수술 중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수술 공간을 고도의 무균환경으로 유지하는 특수 수술 설비입니다.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의 온도, 습도, 조도, 압력 기류의 분포와 속도 등을 일정범위 내로 제어합니다. 크린룸 수술시스템으로 환자는 최적의 상태에서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손병원 성장(통계)

예손병원의 성장 그리고 도약
우리는 도전과 혁신의 미래를 함께합니다.

2009
부천시 감사
-지역주민 복지
증진 기여

2013
한미중소병원상
대한중소병원
협회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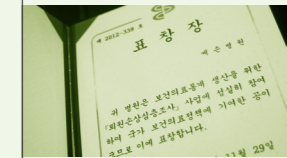
2015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 전문병원
기여 공로

2015
부천시 표창장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



2017
산재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2017
대한병원협회장상



2012
질병관리청
퇴원손상심층조사
- 우수병원 표창

2014
고관절 치환술 진료량
평가 1등급

2014
부천시 모범시민
상 표창

2016
산재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수상내역



2020
자랑스러운 전문
병원인상 수상

2020
코로나19 극복
공로인정 표창

2020
모범 납세자선정,
대통령상 표창



2018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2018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표창

2022
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
최우수 의료기관

2022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
장관 표창장

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평가 우수기관



2024
부천시
노인의료 돌봄사업
표창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창



2021
질병관리청 퇴원
손상심층조사
유공기관 표창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19
부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

2021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2019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병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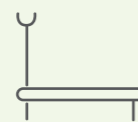


대지면적 **2,989.8** m²



연면적

14,005.01 m²



운영병상 수

196 개



병실 수

64 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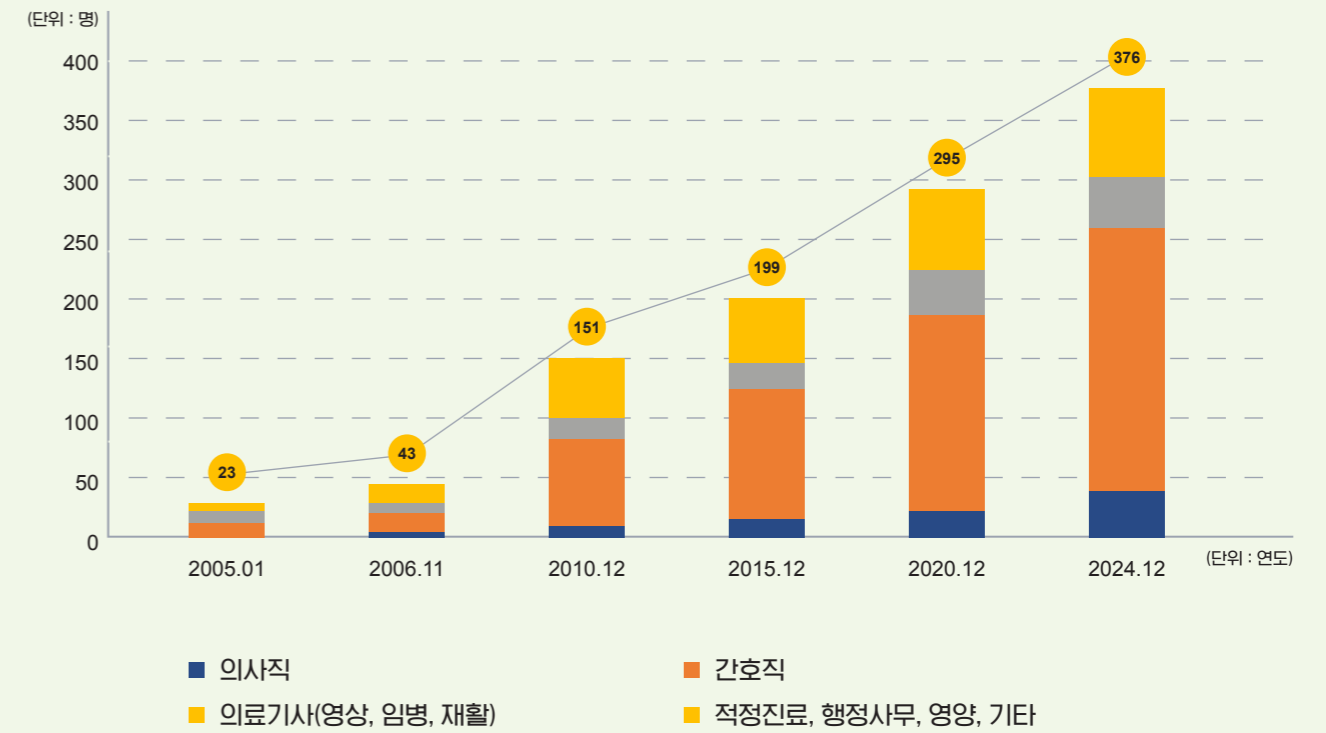


수술실

9 개

직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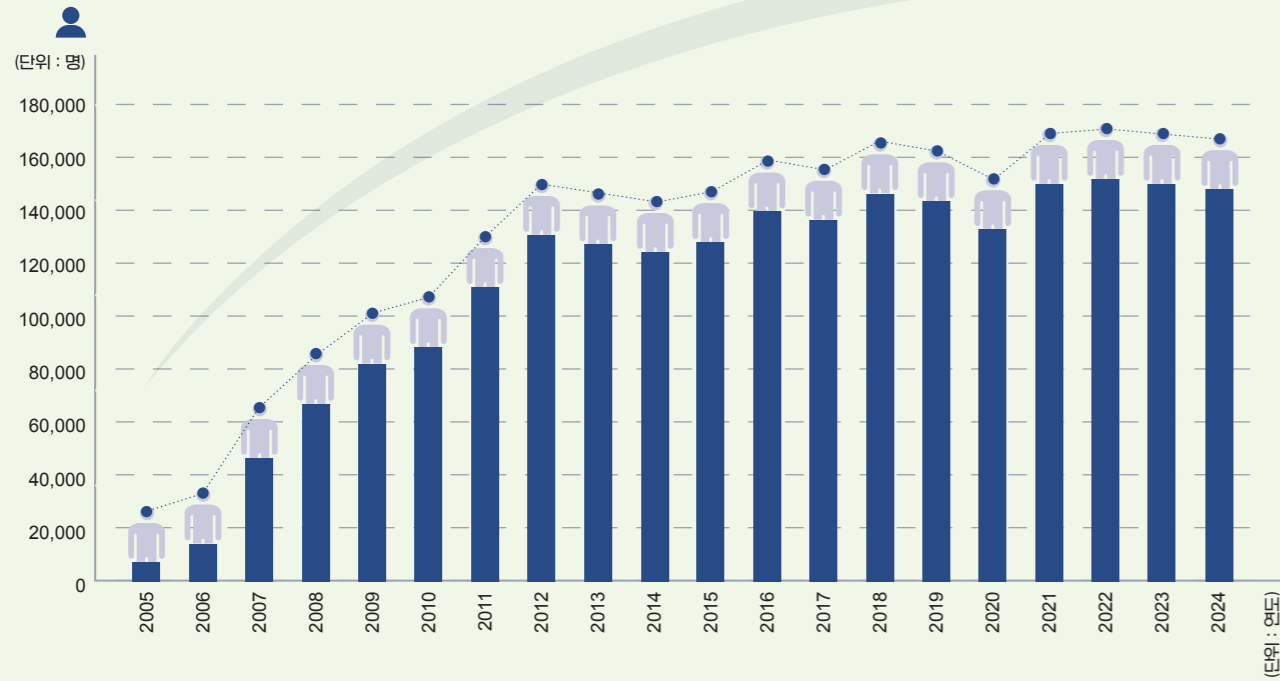
● 직원 수 변화



(단위: 명)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사 (영상, 임병, 재활)	적정진료, 행정사무, 영양, 기타직	연도별 전체 합
2005.01	2		11	5	5	23
2006.11	5		18	6	14	43
2010.12	12	1	70	19	49	151
2015.12	19	1	106	21	52	199
2020.12	24	2	166	37	66	295
2024.12	37	2	218	46	73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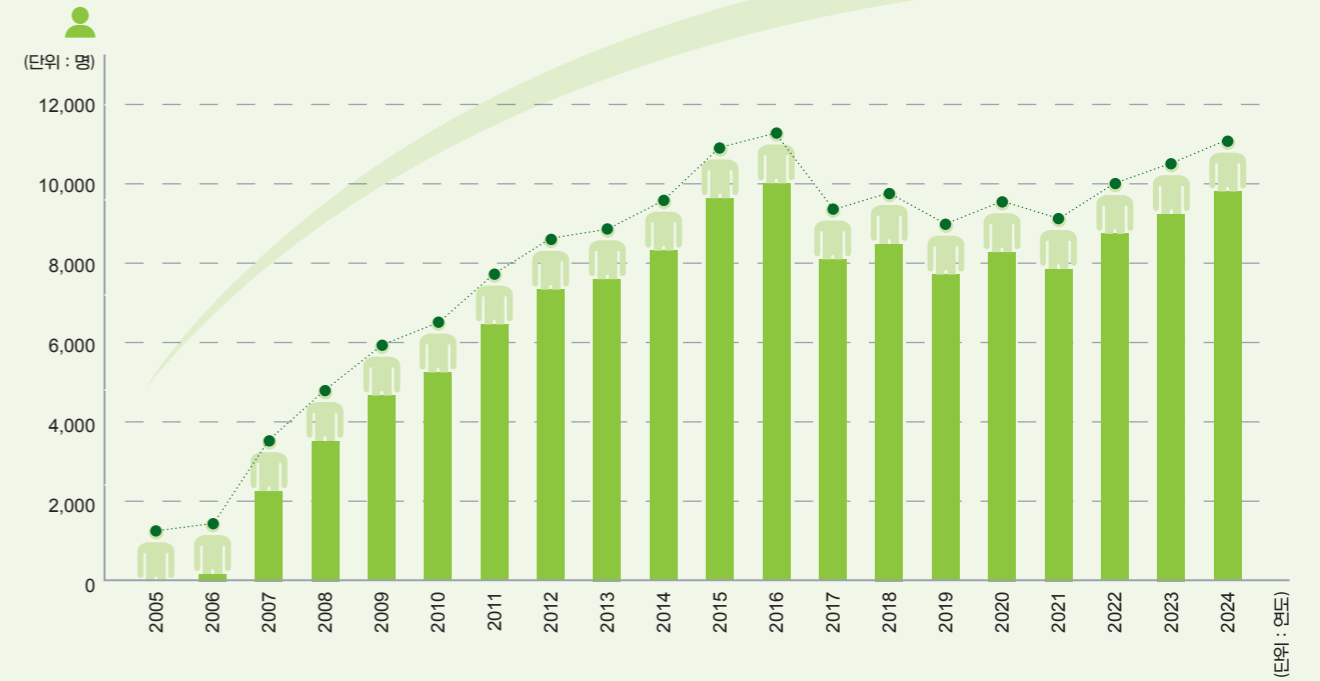
외래환자 수



(단위 : 명)

연도	환자수	연도	환자수
2005	22,425	2015	146,387
2006	32,856	2016	160,827
2007	64,972	2017	157,369
2008	87,862	2018	164,459
2009	101,711	2019	162,743
2010	116,446	2020	152,577
2011	134,209	2021	167,531
2012	147,397	2022	167,965
2013	146,038	2023	165,228
2014	143,822	2024	161,672

입원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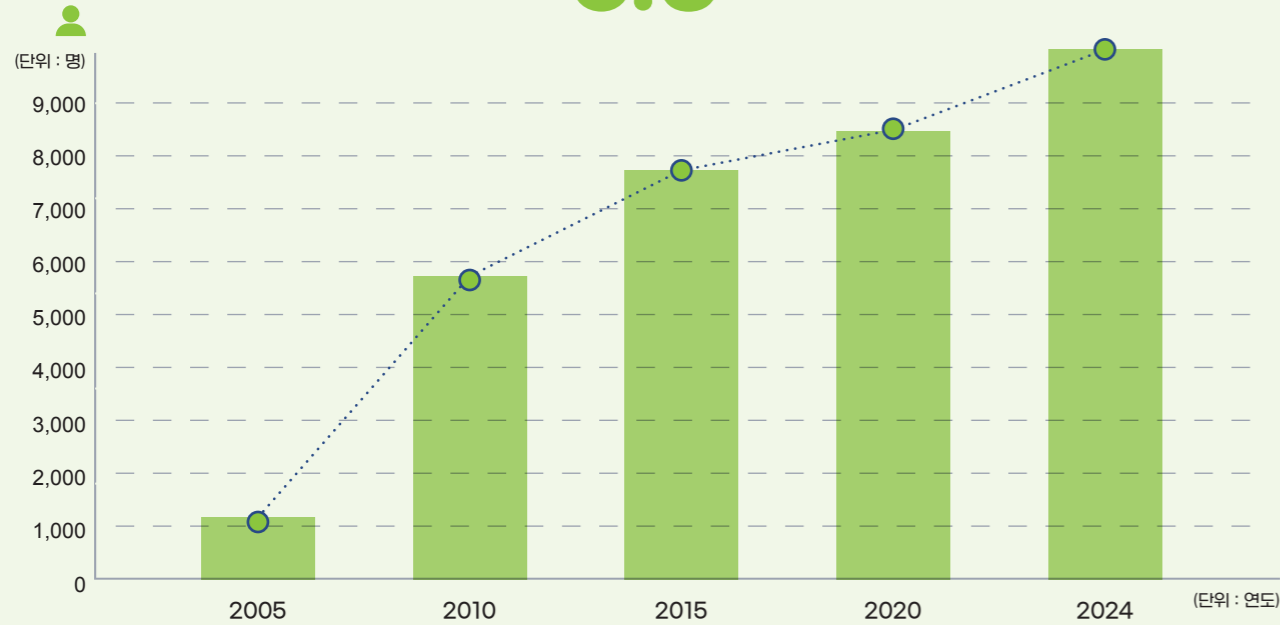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환자수	연도	환자수
2005	903	2015	10,873
2006	1,441	2016	11,202
2007	3,562	2017	9,505
2008	4,810	2018	9,674
2009	5,885	2019	9,243
2010	6,441	2020	9,671
2011	7,547	2021	9,254
2012	8,807	2022	10,047
2013	9,030	2023	10,457
2014	9,671	2024	10,995

수술 환자 수

약 6.3배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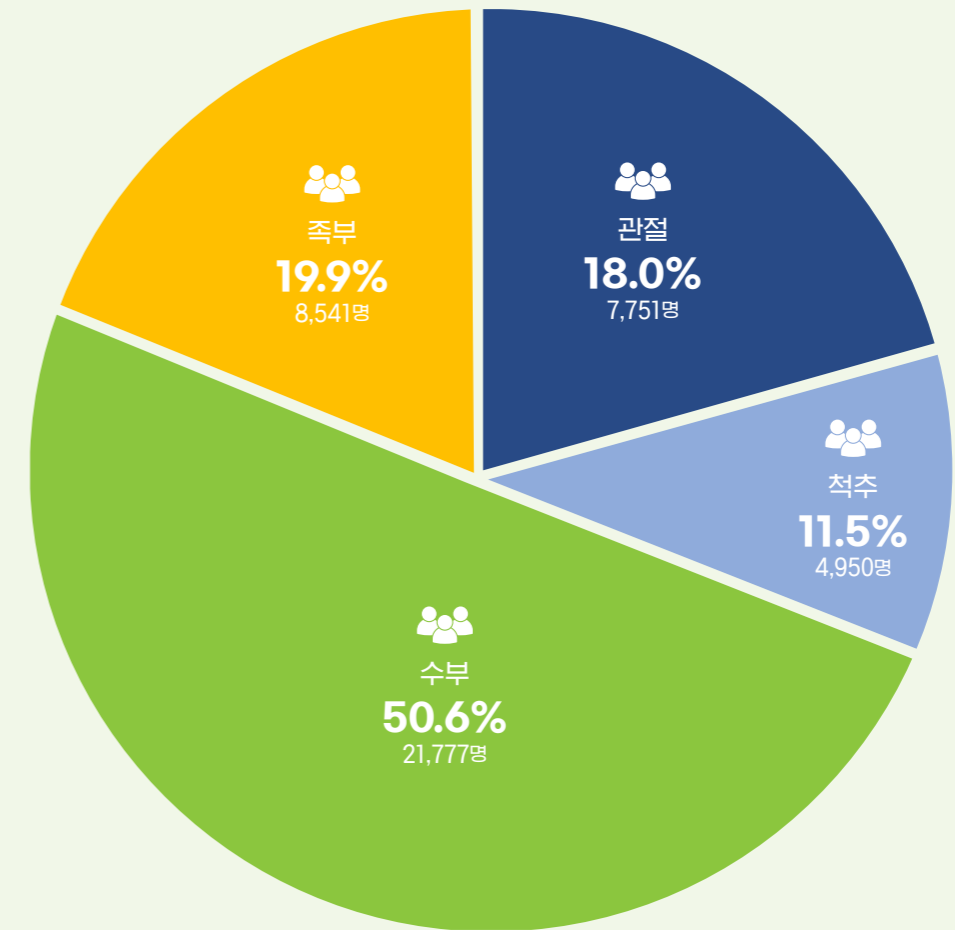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합계	연도	합계
2005년	1,559	2015년	7,945
2006년	1,650	2016년	7,912
2007년	3,217	2017년	7,694
2008년	4,322	2018년	7,598
2009년	5,003	2019년	7,542
2010년	5,725	2020년	8,468
2011년	6,545	2021년	7,364
2012년	7,161	2022년	8,445
2013년	7,002	2023년	8,973
2014년	7,041	2024년	9,769

총 130,935명

5년간 센터별 수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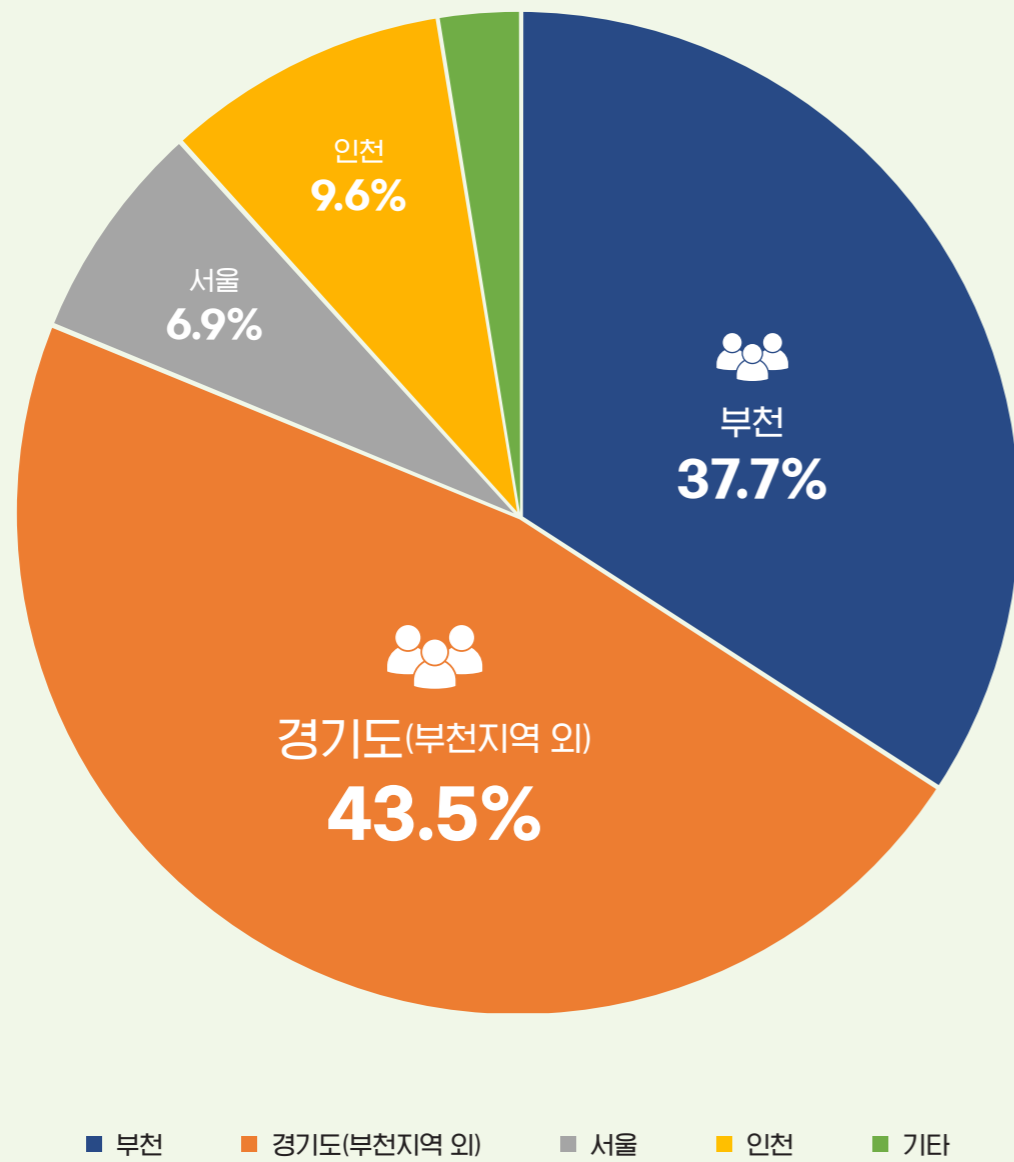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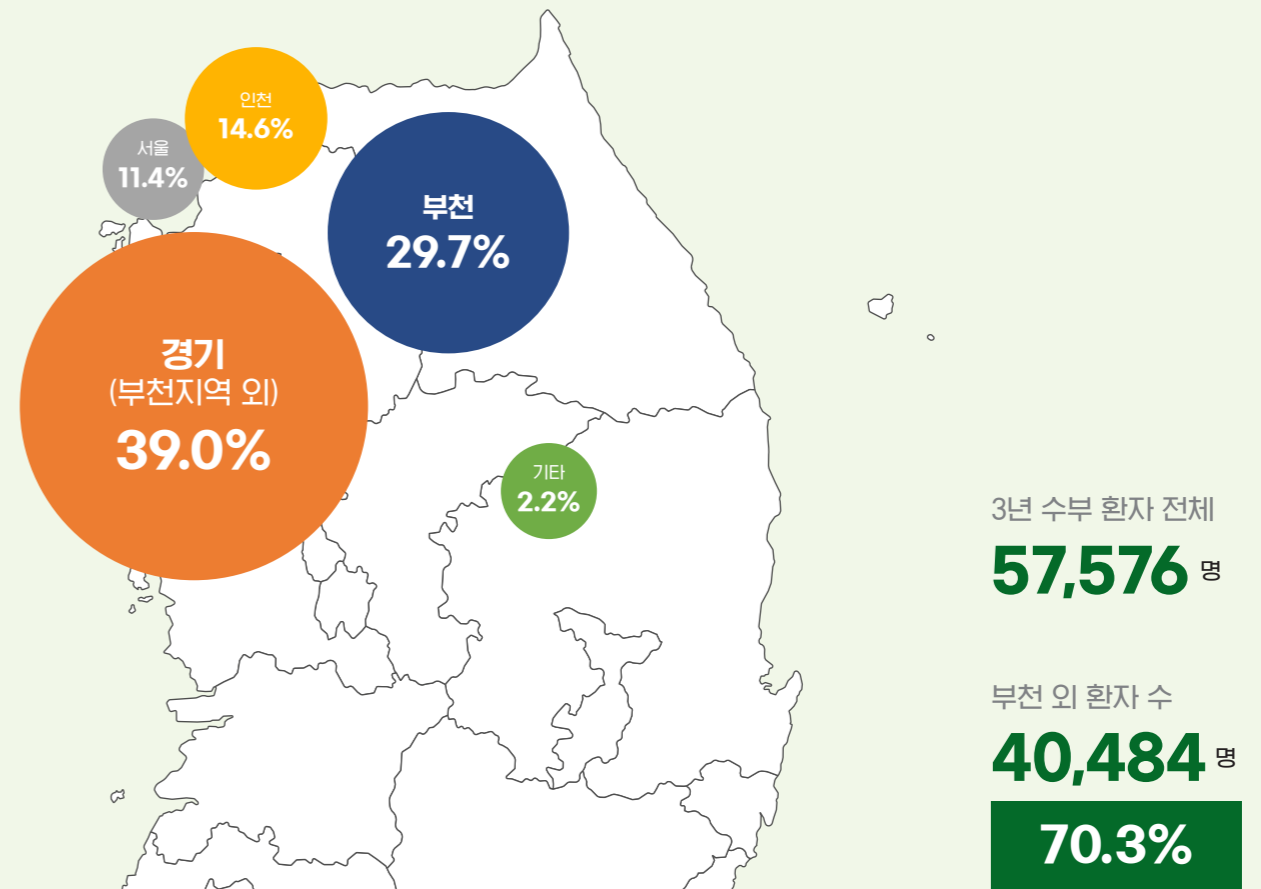
	관절	척추	수부	족부
센터별 비율(5년)	7,751	4,950	21,777	8,541

■ 관절 ■ 척추 ■ 수부 ■ 족부

지역별 환자 분포도(최근 3년)



수부 환자 지역 분포도(최근 3년)



(단위 : 명)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합계
부천	5,324	5,772	5,996	17,092
경기도	6,885	7,637	7,906	22,428
서울	1,861	2,218	2,473	6,552
인천	2,597	2,833	2,984	8,414
세종	28	28	34	90
강원	87	121	97	305
충북	61	83	66	210
충남	125	169	159	453
전북	22	47	28	97
전남	32	51	51	134
경북	38	39	51	128
경남	70	95	87	252
제주	26	33	37	96
해외	417	457	451	1,325

/
예손이 지켜낸 의료의 본질,
기준 위에 설계된 예손의 내일

3

예손병원의 미래

예손병원의 미래

퀄리티를 지키는 선택 92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병원 93

기본의 가치, 미래의 변화 94

퀄리티를 지키는 선택

예손병원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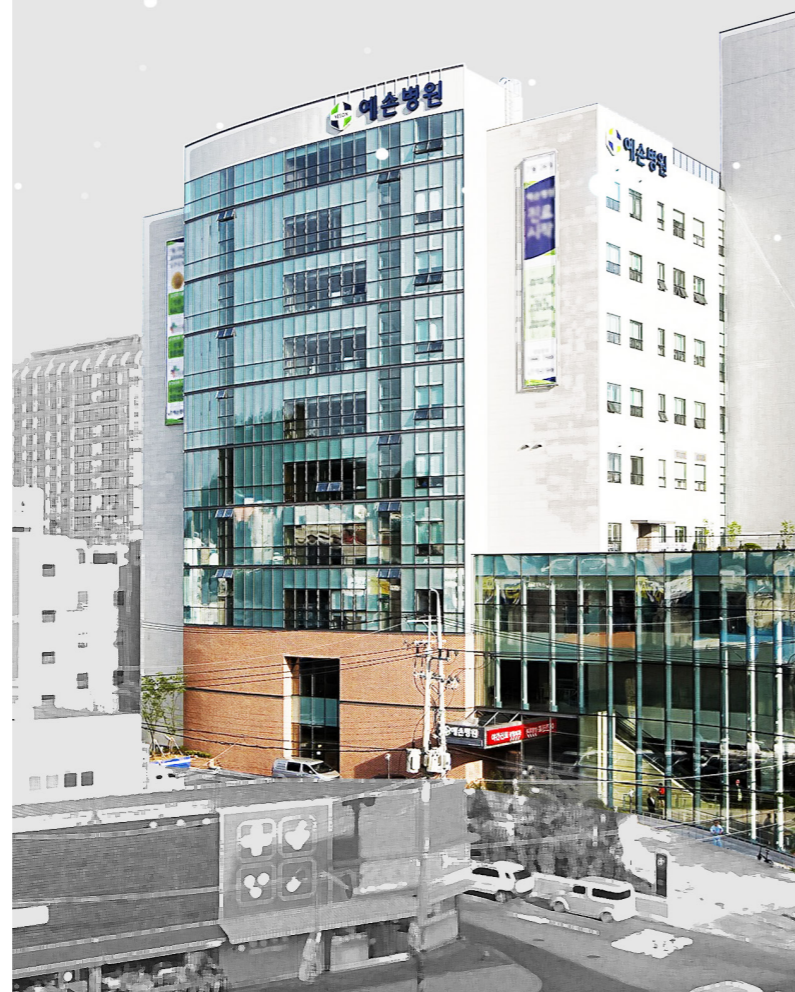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병원

국내외, 부천 지역 이외에서도 찾는 병원

2024년 한 해 예손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161,672명이었다. 이 중 입원환자는 10,995명이었다. 수술 건수는 9,769건으로 한 해 전보다 796건 증가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예손병원을 찾는 이유는 매년 진료과별 뛰어난 의학적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손병원은 해마다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이들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임상 및 연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의료파트 별 임상 경험과 데이터들은 매일 아침 750 컨퍼런스 시간에 공유하며 의료진들은 수시로 케이스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손병원 9층의 반 정도 되는 공간을 터서 정형외과 연구실로 오픈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이 개인 공간을 가지거나, 최소 2-3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예손병원은 모든 의료진들은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옆에 있는 의료진에게 언제든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공유할 수 있다. 예손병원에 있는 모든 시간이 컨퍼런스다. 이처럼 모두의 노력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어느 병원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전문 진료시스템이 구축됐다. 주어진 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뜨겁게 머리를 맞대어 이룩한 예손병원만의 진료 안정성과 치료 우수성이 여러 국내외 학회 발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매해 커져가는 병원을 바라보며 김진호 원장은 더 큰 도약을 위해 한때 분원을 낼까 고민했던 적도 있다.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적합한 장소를 찾아봤지만, 결국 포기했다. 분원을 내는 것은 지금의 예손병원 퀄리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커지는 길은 분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병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진호 원장이 병원을 키우는 이유는 명확하다. 앞으로 노인 환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는 단순히 정형외과 진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내과, 응급실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다른 전문 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고 뇌혈관과 응급의학까지 포함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진호 원장은 많은 병원들의 다양한 방향성 속에서도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 병원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 대신, 노인 환자들을 포함한 환자 치료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확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병원

의료진이 떠나지 않는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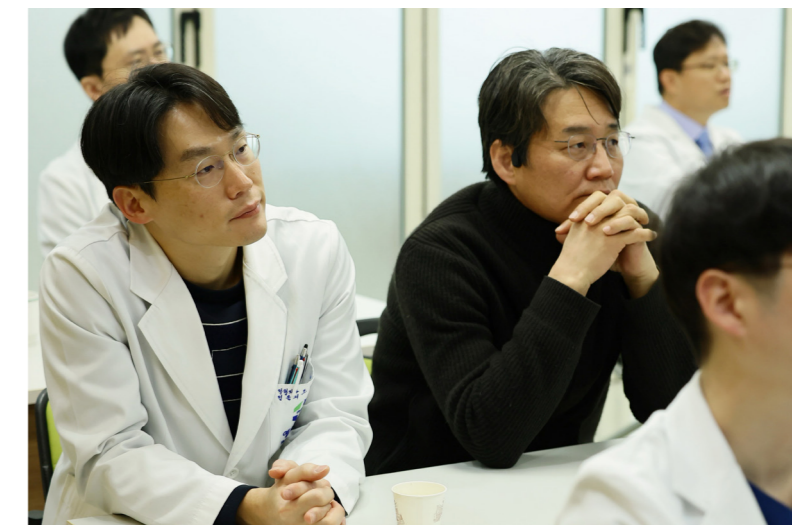
병원의 성장은 환자들이 특정 의료진을 찾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의료진들이 병원에 남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진호 원장이 20년 간 병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자기 시간, 자존심, 수입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in balance 인밸런스다. 의료진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해야 자부심을 느낀다.

의원을 개원하면 수술 대신 도수치료와 같은 업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많다.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선택한 길에서 멀어지며 만족감은 줄어든다. 예손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고, 학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대학병원보다 나은 수입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의료진들이 병원을 떠날 이유가 없다. 조금 다른 얘기로, 한날 주니어급 의료진이 김진호 대표원장에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여기서는 하고 싶었던 수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전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만 하거나 수술 기회를 제한 받았다고 한다. 주니어급 의료진의 이와 같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750 컨퍼런스 때문이다.

매일 오전 7시 50분, 의료진들은 9층 예손홀에 모여 각자 경험한 진료와 수술 사례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다른 병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의료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처음 시행할 때는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시스템의 중요성과 환자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의료진들이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환자 케어와 수술에 집중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주니어 의료진은 다양한 트라우마 케이스를 통해 빠르게 실력을 쌓고, 시니어 의료진은 중요한 조언과 지원으로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

김희중 선생님과 백구현 선생님이 아침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인의 진료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김진호 원장도 컨퍼런스에 매일 참여하지만 의견을 내지 않는다. 김진호 원장이 의견을 내면 실적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대신 의료진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배우도록 한다. 새로운 의료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동화된다. “이전 병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선 이런 방법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컨퍼런스 시간은 주니어, 시니어 의료진 간의 지식과 경험이 더 풍성하게 교류된다. 서로가 보지 못했던 케이스를 다른 동료들이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 경청하고 배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예손병원은 이 철학을 실현했다. 이러한 협력적 환경 덕분에 주니어 의료진은 동년배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며, 다른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료진으로 성장한다.

예손병원의 20년, 변하지 않는 원칙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건 김진호 원장의 20년간 변치 않는 대쪽 같은 원칙 때문이다. “예손병원은 대표가 중심이 되는 곳”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병원의 주인공은 의료진과 직원들이고, 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다.”

기본의 가치, 미래의 변화

지켜온 것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할 예손병원

예손병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본다면?

“사회가 정한 기본을 향해!”

예손병원의 역사를 표현한다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단순히 개인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시대가 바뀌면 의료의 기본도 변해야 한다. 예손병원이 학회와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도 시대의 변화를 배우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본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학회는 단순히 발표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다른 의료진들의 발표를 듣고 새로운 치료기술을 배우는 자리다. “이 치료 방법을 적용해볼까?” 또는 “이 치료법이 라면 우리가 기존에 어려움을 겪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의료진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개원의들은 하던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시대의 변화에 맞춘 의료의 기본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정형외과 치료의 기본은 계속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 골절이 발생하면 기브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레이트(손목 지지대)가 등장했고, 이후에는 골절 치료 시 항생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수술이 보편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치료 방식이 변했을까. 단순히 치료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기브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손이 굳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손의 진료가 필요한 시기는 대개 60세 이후였고 대가족 문화 속에서 일을 대신할 가족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보편적이고, 85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다. 시대가 바뀌고 환자들도 그 시대에 적응해야 하니 요구도 달라진 것이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손가락을 고정하는 관절 고정술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환자들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원한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 같은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손가락 인공관절술을 보편화했다. 한국도 머지않아 이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기본이다.

이 기본을 알기 위해 외부 활동도 하고 학회 활동도 하면서 가서 보고 들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이 치료가 올바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예손병원이 의료진들에게 학회에 참석하고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환자가 의료진을 믿고 찾아왔지만 만약 그 의사가 수십 년 전 학생 시절 배운 방법만 고집한다면,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본은 사라지게 된다. 말을 잘하지만 실력 없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위험하듯,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손병원은 앞으로도 학회와 연구를 통해 기본을 익히고,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의료를 이어나갈 것이다.

20주년 동안 함께한 동료들이 예손병원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기억이 나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예손병원을 통해 더 발전했다”거나, “여기에서의 시간이 의료진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병원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예전 서울대병원에서 예손병원을 ‘개원 사관학교’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예손병원을 거쳐 간 의료진들이 개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서 오래 근무했던 의료진들은 “예손병원에서의 경험이 개원 준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만약 예손병원에서의 시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동료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여하튼 예손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특히 골절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4년 정도 근무했다면, 그 나이대의 의료진으로서 가장 많은 스킬을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쌓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지금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켜온 것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

예손병원 50주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세대 교체와 예손 문화”

병원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 의료진과 직원들이 세대별로 역할을 나누어가며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예손병원은 지난 2년 동안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왔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세대 교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의료진이 들어오고 윗세대가 케어해주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각 파트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춘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예손병원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인재 충원이 필요하다. 수부센터를 예로 들면 2025년 최대 10명의 전문의를 목표로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 분야를 세분화하고, 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할 수 있다.(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성되고 나면 의료진수가 많아진 만큼 환자 수도 늘어나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시설 확충도 필수적이게 된다. 시설과 인원이 늘면, 다음으로는 나이가 든 윗세대 의료진들은 외래 진료를 줄이고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윗세대가 이런 역할을 하면 중간 세대 의료진은 병원의 중심 역할을 맡아 활발히 진료하고 외부 활동도 병행한다.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은 배워나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된다면 병원은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환자들은 예손병원의 정형외과 진료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준비는 이론 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예손병원은 의료진 변동이 적고 연배 높은 의료진이 꾸준히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의료진들로부터 놀라움을 받고 있다.

의료진들이 계속 근무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의료진들은 흔히 개원에 대한 고민을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스스로와 주변을 견주어 봤을 때, 예손병원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남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삶과 커리어가 대학병원이나 개원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일하면 내가 원하는 전문성과 삶의 균형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20년을 책임질 세대가 될 것이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세대 교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병원의 1세대 직원들이 20주년을 맞이하며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성장하고,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 치열한 업무를 벗어난 1세대 직원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걸 보는 밑에 직원들은 “여기는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100년 기업은 많지 않다. 100년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보면 단순하게 규모 확장, 시설만으로 되지 않았다.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즉 문화가 조성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예손병원도 50년, 100년 뒤를 이어나가기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의료진과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YES 20년의 믿음
ON 근골격계 기준



/
의료진의 협진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료시스템,
각 부서별 업무 협조를
통해 최선의 진료

4

김진호 에필로그

김진호 에필로그

모든 순간이 지금, 예수를 만들었다

100

김진호 에필로그

김진호 에필로그

모든 순간이 지금, 예손을 만든다.

정형외과 선택의 첫 걸음

인턴 시절, 심장수술에 깊은 관심이 있어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하며 선배 레지던트와 함께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켰다. 환자를 치료하며 느낀 보람은 컸지만, 자기 삶이 없는 중환자실의 생활을 평생의 목표로 삼기엔 망설여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쉽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중환자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는 무엇일까’ 고민하던 순간, 학교 선배였던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정형외과를 추천해주었다. 정형외과는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였다. 그렇게 정형외과 인턴생활을 자원하게 되었다.

정형외과의 가장 큰 매력은 ‘눈에 보이는 회복’이다. 할 일은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환자의 회복이 손에 잡히고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기에 그만큼 보람도 크다. 극심한 통증을 겪던 환자가 수술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낀다. 그 순간들이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늘 일깨워준다.

환자와의 ‘신뢰’가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에서 한 번 낙방한 김진호 원장은 숨을 고르기 위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잠시 쉬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서 수부외과 진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선배(김주성 전문의:대구 현대병원)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시절 Replantation(재접합술)을 성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습했고, 그 결과 10년 동안 3천여 건의 미세수지접합술을 집도했을 정도로 수부진료에 진심인 사람이었다.

당시만 해도 수지접합술 시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손가락을 다시 이어준다는 소문을 들은 수부절단 환자들이 날마다 찾아왔다. 병원은 늘 응급환자들로 북새통이었고 선배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정해진 외래 시간 없

대구현대병원



이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수술 중 들어오는 응급 환자를 케어하며 당직을 서 줄 의료진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후배 김진호 원장이 대구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곧바로 도움을 요청했다. 때마침 김진호 원장도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던 참이었다. 머리를 식히려 내려간 고향 대구에서 선배와 그렇게 인연이 닿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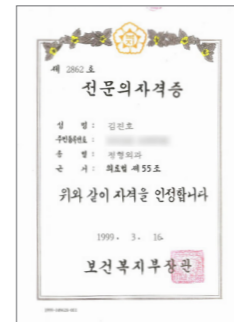
그렇게 수개월간 응급 당직을 도우며 수부 절단 환자들의 절박한 모습과 그런 환자들을 위해 무던히 애쓰는 선배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김진호 원장은 ‘환자와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훗날 개원한다면 반드시 환자와 신뢰로 이어지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 순간 품은 ‘신뢰’의 가치는 지금도 예손병원의 모든 진료에 이어지고 있다.

정형외과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순간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수부외과다. 이 세부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인턴 시절 중환자실에서의 경험과 한때 응급수술을 꿈꿨던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부외과는 김진호 원장에게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예손병원
김진호 대표원장

김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인
김진호

발행처
예손병원
Tel. 1666-7582
yesonhospital.com

발행부
예손병원 홍보팀

편집/디자인
나인다세해
Tel. 02-6091-0222
ninepr.com

©2025. 예손병원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사진 및 자료의 사용권한은 예손병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005 - 2025
예손병원 20년사